

김익희(金益熙, 1610-1656)

김익희는 자가 중문(仲文)이고 호는 창주(滄洲)다. 할아버지는 김장생(金長生)이고, 아버지는 김반(金槃)이다. 동생은 김익겸(金益兼)이다. 어렸을 적에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났는데 김장생이 큰 인물이 될 것을 기대했다. 가학으로 시(詩), 서(書)를 배우고 장유(張維), 정홍명(鄭弘溟)에게서 고문(古文)을 배웠다.

1633년(인조 11)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부정자(副正字)에 등용되었다. 같은 해 검열을 거쳐 홍문록(弘文錄)에 올랐다. 1635년 수찬(修撰)·사서(司書)에 올랐다. 경연(經筵)에서 강론할 적에 낭랑한 목소리로 뜻을 분명하게 밝혀 인조(仁祖)가 가상하게 여겼다.

병자년(丙子年, 1636년 인조 14)에 후금이 청으로 국호를 바꾸고 사신을 보내 조정을 협박하자, 당시 옥당(玉堂)에 있으면서 동료들과 청과의 화의를 물리쳐야 한다고 주청했는데, 그의 의리가 매우 분명했다. 당시 이미 전쟁의 실마리가 열렸는데도 관리들이 맡은 임무에 전처럼 게으른 것을 생각하고 포빙악화(抱冰握火, 월왕(越王) 구천(句踐)이 오왕(吳王) 부차(夫差)에게 항복한 후 그 원수를 갚으려고 괴롭고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는 뜻에서 겨울이면 차가운 얼음을 안고 여름이면 뜨거운 불을 손에 쥐었다는 고사(故事)에서 나온 말)의 주장을 지극히 진언하여 신첩(臣妾, 굴복하는 사람)으로 전락되는 욕을 막고자 했다.

이해 겨울 청이 마침내 침략해 오자 조정의 논의는 ‘걸린(乞憐, 다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 줄 것을 구한다는 뜻)’으로 책략을 삼고자 했다. 이에 탄식하길, “지금 반드시 저들한테 꺾이어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바르게 행하다 죽는 것만 못하다.” 하고 드디어 동료들과 조정으로 들어가 임금을 마주하고서 “지금 화해하자는 말로 주상에게 아뢰는 자는, 반드시 죄를 주고 난 연후에 적(賊)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탄 수레를 호위하여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가 독전어사(督戰御史)가 되었다.

1637년(인조 15) 2월에 맹약(盟約, 청나라와 맺은 강화 조약)이 이루어졌는데, 어머니 서씨(徐氏)와 둘째 아우 익겸(益兼)이 강도(江都, 강화도)에서 순절했다는 소식을 비로소 듣고서 적과 한 하늘을 이고 있음을 통분하였다. 또 나라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치 살고 싶지 않은 듯이 여기어 상복을 벗은 뒤에 비록 조정의 일에 힘썼으나 마음속에는 즐거워하지 않았다.

1637년 교리(校理)·집의(執義)를 거쳐 1639년 이조좌랑이 되고, 1642년 사간이 되었다. 강원도감사(江原道監司)로 있을 적에 노산묘(魯山墓, 뒷날의 장릉(莊陵, 단종의 능))를 수리하고 울곡(栗谷)의 사당을 새롭게 하였다. 뒤에 부제학(副提學), 이조참의(吏曹參議)를 거쳐 대사간(大司諫)이 되었는데 노산군(魯山君)의 묘소에 제사 드릴 것을 청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그 후 병이 들어 체직되었다가 다시 성균관 대사성 겸 동지경연사(成均館大司成兼同知經筵事)에 제수되었다. 효종이 “김익희(金益熙)는 비록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도 대사성(大司成)만은 그대로 유지하게 하라.”고 하였다.

대사헌이 되자 모든 관사 사람들이 두려워 숨을 죽였고 여러 시기한 자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효종이 포상하여 “그대 직분에 삼가 힘써야 한다.”고 하자, 사례하여 이르기를, “분주히 직분을 수행함은 유사(有司)의 떳떳함입니다.”라고 했다. 효종이 “유사의 떳떳함을 거론할 수 있는 자는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동료들 가운데 법에 구애되는 일을 한 자가 있으므로 잡아서 용서하지 않았는데 마침내 거슬리는 말이 있어도 임금은 공을 올곧게 여겨 위로하고 달랬다.

1656년(효종 7) 정월(正月)에 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館)의 대제학에 제수되었다가 2월에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승진하였는데, 청에 보내는 문서를 짓는 것 때문에 대제학을 사양하자 임금도 회피(回避)할 것을 특별히 허락하고 문서에 관한 일을 차관(次官)에게 명하였다.

5월에 대사헌(大司憲)을 거쳐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임명하였다. 효종이 인재를 추천하게 하여 나랏일을 함께 성취하려 하다가 병환으로 사직의 소를 보고서 깜짝 놀라 이르기를, “이 직임에 발탁하여 임명한 것은 크게 쓰기 위함인데, 어찌하여 거듭 질병에 걸린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체직을 허락하고 의원과 약을 서로 이어지게 하였으며 또한 액정서(掖庭署, 왕과 왕족의 명령 전달, 알현 안내, 문방구 관리 등을 관장하던 관서) 사람을 보내서 문안케 하였다. 부음(訃音)이 알려지자 효종이 몹시 슬퍼했다.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지은 비명이 『국조인물고』에 실려 있는데, 김익희와 송시열의 교분이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일찍이 노선생(老先生, 김장생)의 문하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공과 놀기를 좋아하여 매우 돈독하였다. 을미년(乙未年, 1655년 효종 6년) 공은 임금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위촉되어 와서 나를 위문하였는데, 공이 조정으로 돌아오자 임금께서 또한 천신(賤臣, 송시열 자신을 가리킴)에게 “장차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쳐서 짐의 뜻에 만에 하나라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그 뒤에 부름을 받고 진언(進言)하였더니, 임금께서 위연(喟然)히 탄식하여 이르기를, “김익희(金益熙)의 말이 언제나 이와 같더니, 무슨 까닭으로 일찍 죽었는가?”라고 하였다. 나는 눈물을 거두고 나왔다.”

문집에 『창주유고(滄洲遺稿)』가 있다.

『창주유고(滄洲遺稿)』는 18권 7책으로 된 목판본이다. 이 가운데 권8의 「갑신봉사(甲申封事)」는 1644년(인조 22) 병자호란을 겪은 뒤 민심이 안정되지 못하고 전야(田野)가 황폐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수습 방법을 제시한 글이다.

1654년(효종 5)에 올린 「갑오봉사(甲午封事)」는 먼저 천덕(天德)과 왕도(王道)의 관계를 약속하고, 이어서 사람을 얻어서 위임하는 방도와 직관(職官)·전부(田賦)·병제(兵制)·학규(學規)

등의 문제에 관한 견해를 개진한 글이다. 특히 효종의 인정을 받았던 유명한 봉사라 전해 온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역국조인물고

김장생(金長生, 1548-1631)

김장생은 본관이 광산(光山)이고 자는 희원(希元), 호는 사계(沙溪)다. 할아버지는 지례현감 김호(金鎬)이고, 아버지는 대사헌 김계휘(金繼輝)이다. 어머니는 평산신씨(平山申氏)로 우참찬 신영(申瑛)의 딸이다. 아들이 김집(金集)이다.

1560년 송익필(宋翼弼)로부터 사서(四書)와 『근사록(近思錄)』 등을 배웠고, 20세 무렵에 이이(李珥)의 문하에 들어갔다. 1578년(선조 11)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창릉참봉(昌陵參奉)이 되고, 1581년 종계변무(宗系辨誣)의 일로 아버지를 따라 명나라에 다녀와서 돈녕부 참봉이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호조정랑이 된 뒤 명나라 군사의 군량 조달에 공을 세워 종친부전부(宗親府典簿)로 승진하였다. 1596년 연산으로 낙향했는데 단양·양근 등지의 군수와 첨정(僉正)·익위(翊衛)의 관직이 거듭 내려졌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이듬해 봄에 호남 지방에서 군량을 모으라는 명을 받고 이를 행해 군사감첨정(軍資監僉正)이 되었다가 곧 안성군수가 되었다.

1601년 조정에서 『주역구결(周易口訣)』의 교정에 참가하도록 불렀으나 병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이듬해 청백리에 뽑혔지만 복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1605년 관직을 버리고 연산으로 다시 내려갔다. 그 뒤에 익산군수를 지내고 1610년(광해군 2) 회양·철원부사를 역임하였다.

1613년 계축옥사 때 동생이 연좌되었다가 무혐의로 풀려나자 관직을 버리고 연산에 은둔해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그 뒤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75세의 나이에 장령으로 조정에 나갔다. 사업(司業)으로 옮겨 원자보도(元子輔導)의 임무를 겸하다가 병으로 다시 낙향했다.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으로 왕이 공주로 파천해오자 길에 나와 어가를 맞이하였다. 난이 평정된 뒤 왕을 따라 서울로 와서 원자보도의 임무를 다시 맡고 상의원정(尙衣院正)으로 사업(司業)을 겸하였다. 집의(執義)를 거친 뒤 낙향하려고 사직하면서 13가지의 중요한 정사(政事)를 논하는 소를 올렸다.

그 뒤 좌의정 윤방(尹昉), 이조판서 이정구(李廷龜) 등의 발의로 공조참의가 제수되어 원자의 강학을 겸하는 한편, 왕의 시강과 경연에 초치되기도 하였다. 1625년에 동지중추부사를 임명받았으나 이듬해 다시 사직해 행호군(行護軍)의 산직(散職)으로 낙향했다.

1627년 정묘호란 때 양호호소사(兩湖號召使)로서 의병을 모아 공주로 온 세자를 호위하였다. 곧 화의가 이루어지자 모은 군사를 해산하고 강화도의 행궁(行宮)으로 가서 왕을 배알하고, 그 해 다시 형조참판이 되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다시 사직해 용양위부호군으로 낙향한 뒤 1630년에 가의대부로 올랐으나, 조정에 나가지 않고 줄곧 향리에 머물면서 학문과 교육에 전념하였다. 늦은 나이에 벼슬을 시작하고 과거를 거치지 않아 요직이 많지 않았지만, 인조반정 이후로는 서인의 영수격으로 영향력이 매우 컸다.

인조 즉위 뒤에도 향리에서 보낸 날이 더 많았지만, 김장생의 영향력은 이이의 문인으로 줄곧 조정에서 활약한 이귀(李貴)와 함께 인조 초반의 정국을 서인 중심으로 안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하였다. 학문과 교육으로 보낸 향리 생활에서는 줄곧 곁을 떠나지 않은 아들 김집의 보필을 크게 받았다.

김장생의 문인은 많은데,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이유태(李惟泰)·강석기(姜碩期)·장유(張維)·정홍명(鄭弘溟)·최명룡(崔命龍)·김경여(金慶餘)·이후원(李厚源)·조익(趙翼)·이시직(李時稷)·윤순거(尹舜舉)·이목(李槩)·윤원거(尹元舉)·최명길(崔鳴吉)·이상형(李尙馨)·송시영(宋時榮)·송국택(宋國澤)·이덕수(李德洙)·이경직(李景稷)·임의백(任義伯) 등 당대의 비중 높은 명사를 즐비하게 배출하였다. 아들 김집도 문하이지만, 문인들 사이에는 김장생을 ‘노선생’, 아들을 ‘선생’으로 불렀다고 한다.

학문적으로 송익필·이이·성혼 등의 영향을 함께 받았다. 하지만 예학(禮學) 분야는 송익필의 영향이 컸으며 예학을 깊이 연구해 아들 김집에게 계승시켜 조선 예학의 태두로 예학파의 한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이와 성혼을 위해 서원을 세우고 1만 8000여 자에 달하는 이이의 행장을 짓기도 하였다. 스승 이이가 시작한 『소학집주(小學集註)』를 1601년에 완성시켜 발문을 붙였는데, 『소학(小學)』에 대한 관심은 예학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김장생은 83년의 긴 생애 동안 30대 이후 꾸준히 예학을 연구했다. 예서는 크게 세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전례문답(典禮問答)』은 국가 의례를 다룬 저서다. 『가례집람(家禮輯覽)』(1599년)과 『상례비요(喪禮備要)』(1583년)는 양반의 생활 예절을 정리한 저작이다. 『의례문해(疑禮問解)』(1646년)는 변칙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답변한 내용이다.

『인조실록』 9년 조에 김장생의 졸기가 실려 있다. 김장생의 대략을 가늠할 수 있다.

“전 형조 참판 김장생(金長生)이 죽었다. 장생은 자(字)가 희원(希元)으로 자질이 돈후하고 효도와 우애가 순수하고 지극하였다. 일찍이 울곡(栗谷) 이이(李珥)를 따라 성리학(性理學)을 수학하여 마음을 오로지 쏟아 독실하게 좋아했다. 독서할 적마다 반드시 의관을 정제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매일 경전(經傳)과 염락(濂洛, 주렴계, 정호, 정이)의 여러 책들을 가지고 담겨 있는 뜻을 탐색하였는데, 마음이 흡족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밤낮으로 사색하여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으며 반드시 그 의미를 파악한 후에야 그쳤다. 또 고금의 예설(禮說)을 취하여 뜻을 찾아내고 참작하여 분명하게 해석하였으므로 변례(變禮)를 당한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질문하였다. 일찍이 신의경(申義慶)이 편집한 상제서(喪制書)를 정리하고 절충하여 『상례비요(喪禮備要)』라고 이름 하였는데 세상에 유행하였다. 사람을 정성으로 대할 적에 화기가 애애하였

으나 일의 시비를 논하고 사람의 선악을 분별할 때는 엄정한 말과 낮빛으로 굽히거나 흔들림이 없었다.”

<참고문헌>

국역조선왕조실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민정중(閔鼎重, 1628-1692)

민정중은 본관은 여흥(驪興)이고 자는 대수(大受), 호는 노봉(老峯)이다. 할아버지는 경주부윤 민기(閔機)이고, 아버지는 강원도관찰사 민광훈(閔光勳)이다.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민유중(閔維重)이 동생이다.

1649년(인조 27)에 정시 문과에 장원해 성균관전적으로 벼슬에 나가, 예조좌랑·세자시강원사서(世子侍講院司書)가 되었다. 직언(直言)으로 뛰어나 사간원정언·사간에 제수되고, 홍문관수찬·교리·응교, 사헌부집의 등을 지냈다. 외직으로는 동래부사를 지냈으며, 전라도·충청도·경상도에 암행어사로 나가기도 하였다.

1659년 현종이 즉위하자 소(疏)를 올려 인조 때 역적으로 논죄되어 죽음을 당한 강빈(姜嬪)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강빈이 인조 때에 죄를 받아 폐출되어 죽고 그 자녀는 어린데 모두 제주도로 귀양을 갔으므로 백성들이 안타깝게 여겼다. 신료 중에 감히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못했는데 홀로 맨 먼저 논하였다. 다른 신료들이 깜작 놀랐지만 현종이 그 충직한 것을 알고 죄주지 않았다.

소현세자는 1623년 인조반정으로 부친이 왕위에 오르자 14세의 나이에 세자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1636년 병자호란으로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한 이후 동생 봉림대군(후에 효종)과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갔다. 소현세자는 북경에서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을 배웠으며 1645년 귀국할 때 천문, 과학, 종교에 관한 많은 서적 등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인조 및 조정 중신들의 반감을 샀고, 이에 인조를 비롯한 조정의 냉대를 받았다.

소현세자는 귀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병에 걸렸다가 귀국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아울러 세자가 죽으면 세손에게 왕위를 전해야 하는 법을 어기고 봉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했다. 더욱이 세자빈이 역모를 꾸몄다 하여 세자빈 강 씨를 사가로 폐출시킨 뒤 두 달 뒤 사사했다. 또 소현세자의 세 아들에게도 강빈의 죄를 물어 제주도로 유배를 보냈다. 이 가운데 두 아들은 제주도에서 풍토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민정중은 이어서 병조참의에 제수되었으나 아버지가 죽어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상복을 벗은 뒤 사간원대사간으로 나아갔다. 그 뒤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성균관대사성·이조참의·이조참판·함경도관찰사·홍문관부제학·사헌부대사헌을 거쳐, 1670년(현종 11) 이조·호조·공조의 판서, 한성부윤(漢城府尹)·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 등을 역임하였다.

삼사에 재직할 때는 청의(淸議)를 힘써 잡았고, 대사성에 있을 때는 성균관의 증수(增修)와 강과(講課)에 마음을 다해 선비 양성의 효과가 매우 많았다. 또한, 함경도관찰사로 나갔을 때는 그곳의 유풍(儒風)을 크게 일으켰다.

1675년(숙종 1)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으나 허적(許積)·윤휴(尹鑣) 등 남인이 집권하자 서인으로 배척을 받아 관직이 삭탈되고, 1679년 장흥(長興)으로 귀양갔다. 이듬해 경신환국으로 송시열 등과 함께 귀양에서 풀려 우의정이 되고, 다시 좌의정에 올라 4년을 지냈다. 이때 호포(戶布) 등 여러 가지 일을 실행하려 했으나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의 반대에 부딪혔다.

1685년부터는 중추부지사(中樞府知事)·판사(判事)로 물러앉아 국왕을 보필하였다. 그러던 중 1689년 기사환국으로 다시 남인이 집권하자 노론의 중진들과 함께 관직을 삭탈당하고 벽동(碧潼)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1694년의 갑술환국으로 남인이 다시 실각하자 관직이 회복되어 양주로 옮겨 장례를 치르고, 뒤에 여주로 옮겨졌다.

『숙종실록』 18년 조에 민정중의 졸기가 실려 있다. 민정중의 대략을 가늠할 수 있다.

“전(前)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이 벽동(碧潼)의 적소(謫所)에서 졸(卒)했는데, 65세였다. 민정중은 자(字)가 대수(大受)로 사람됨이 영특(英特)하고 강직하여 굴하지 않았으며 예법으로 자신을 신칙하였다. 일찍이 과과(魁科, 문과 장원)에 올랐고, 극력 청의(淸議)를 붙들었으며,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 등 제현(諸賢)이 가장 중시하는 바가 되었다. 국자감(國子監)의 장관(長官)이 되어 선비들을 조성해 내는 데에 매우 공효가 있게 되므로, 당시에 정업(鄭曄) 이후의 제일인 사람이라고 했다. 그 뒤 다른 관직에 뽑혀서도 그대로 겸임하고 있고 체직되지 않았으며, 최선을 다해 교도(敎導)하여 선비들의 풍습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 관북(關北)을 안찰(按察)할 적에 북쪽의 풍속은 오로지 무예(武藝)만 숭상하고 문사(文事)에는 소홀하여 진실로 친상사장(親上死長, 『맹자(孟子)』 양혜왕(梁惠王) 상(上)에 나와 있는 말인데, 곧 친상(親上)은 평소에 윗사람을 친애하는 것이고, 사장(死長)은 위난(危難)을 당했을 적에 어른을 위해 죽는 것임) 하는 의리에 어두우므로, 비록 재질과 능력이 강건(強健)하여도 쓸 데가 없었다. 드디어 자신이 솔선수범(率先示範)하며 선비들의 교화(敎化)를 크게 천명(闡明)하므로, 얼마 되지 않아서 빈빈(彬彬, 문채와 바탕이 함께 갖추어져 찬란한 모양) 해져 볼 만하게 되었다. 그 뒤에 윤휴(尹鑣)와 허적(許積)이 나라의 일을 맡아 보게 되면서 남쪽 변방으로 귀양을 갔는데 비록 배척받는 가운데 있었지만 여망(興望)은 더욱 높아져서 오늘날의 진요옹(陳了翁)이나 유원성(劉元城) 같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다. 경신년의 경화(更化, 고쳐서 새롭게 함) 때에는 제일 먼저 태부(台府, 의정부)에 들어오므로 여러 사람의 마음이 일치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 있는 몇 해 동안 한결같이 임금의 덕을 바로잡는 것과 선비들의 공론을 붙잡기에 주력하고, 여타의 것은 돌아보지 않았다. 만년(晩年)에는 윤拯(尹拯)이 스승을 배반하는 것을 보자 김수항(金壽恒)과 함께 입대(入對)하여 옳음과 그름을 구별하여 밝히므로 세상의 도의(道義)가 더욱 힘입는 바가 있게 되었다. 기사년의 변(變, 기사환국) 뒤에는 못 간신들이 기필코 죽이려고 하면서도 오히려 돌아보며 두렵게 여기는 바가 있어 실행하지 못했었다. 이때에 이르러 졸(卒)하였는데, 뒤에 관작(官爵)을 복구하고 시호(諡號)를 문충(文忠)이라고 하였다.”

이재가 지은 비명이 『국조인물고』에 실려 있는데, 이 또한 민정중의 대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공은 사람됨이 엄준(嚴峻)하고 광명(光明)하며 그 학문은 경(敬)을 첫째로 삼되 감언(敢言)을 좋아하며 훌륭한 행실을 닦아서 사대부를 이끌었다. 처음에 진사(進士)로서 문과(文科)에

장원 급제한 것이 22세 때인데, 이때 효종이 새로 즉위하였다.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에 보임되고 예조 좌랑(禮曹佐郎)·세자시강원 사서(世子侍講院司書)로 옮겼는데, 직언(直言)이 있으면 임금이 아름답게 여기고 삼갔다. ……

일찍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지기(志氣)가 매우 날카로우시나 한결같이 확고한 실속이 없고, 규모가 크기는 하시나 거꾸로 되어 자주 바꾸는 과실이 있으며, 깊은 궁궐에 오래 계시어 마음 편히 지내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니, 근본을 세워서 정치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소견(召見)하고 감사하였다. ……

의정부의 천거로 동래 부사(東萊府使)로 나갔다. 동래부는 왜인을 접대하는 일을 맡았는데 왜인은 본디 교활하고 사납거니와, 약속을 범하면 공이 한결같이 법대로 처리하므로 왜인의 원한이 심하였다. 일찍이 연음(宴飲) 때에 칼을 뽑아 공의 좌석에 던졌으나 공이 움직이지 않으니, 모두 관문(館門)을 함부로 나가는 것을 공이 군사를 시켜 막았는데, 왜인이 그 뒤로는 두려워하여 감히 공을 범하지 못하였다.”

저서로는 『노봉문집(老峯文集)』·『노봉연중설화(老峯筵中說話)』 등이 전하며, 글씨로는 「우상이완비(右相李浣碑)」·「개성부유수민심언표(開城副留守閔審言表)」·「개심사대웅전편액(開心寺大雄殿扁額)」 등이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노봉문집』은 12권 6책으로 된 목판본이다. 송준길(宋浚吉)·송시열(宋時烈) 등과 주고받은 서간에서는 성리학에서 의심나는 대목을 문답식으로 토론하고, 당시 당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시폐 등을 역설해 저자의 정치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당시 당쟁의 핵이었던 예론(禮論)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잡저 가운데 「임진유문」은 임진왜란 때 부산진첨사(釜山鎭僉使) 정발(鄭撥)과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의 활동상을 기록한 것으로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까지 자세하게 묘사해 그들의 충절을 현양하였다.

「연행일기」는 청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는 동안의 일기로 우리나라에서 청나라까지 가는 노정을 명확하게 표시하였고 중국의 풍속과 문화·제도·생활 상태 등 변모해가는 대륙의 정세를 하나하나 묘사하였다. 이 「연행일기」는 박지원(朴趾源)의 「열하일기(熱河日記)」와 견주어 볼만한 작품으로 박지원의 「열하일기」보다 먼저 쓰였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참고문헌>

국역국조인물고

국역조선왕조실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박문일(朴文一, 1822-1894)

박문일은 본관이 밀양(密陽)이고 자는 대수(大殊), 호는 운암(雲菴)·운재(雲齋)·징암(懲菴) 등이다. 평안도 태천(泰川)출신으로 박도정(朴道精)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안동김씨(安東金氏)로 통정대부 김태려(金泰呂)의 딸이다. 이항로(李恒老)의 문인으로 관서지방에서 많은 제자들을 길렀는데 박은식(朴殷植, 1859-1925), 전병훈(全秉薰, 1857-1927) 등의 스승이다. 박문호(朴文五)가 동생이다.

스승 이항로는 경기도 양평 출신으로 3세 때 『천자문』을 떼고, 6세 때 『십구사략(十九史略)』을 읽고 「천황지황변(天皇地皇辨)」을 지었다. 12세 때 신기령(辛耆寧)에게서 『서전(書傳)』을 배웠다. 1808년(순조 8) 반시(泮試: 한성초시)에 합격했지만 당시 권력층 고관이 과거급제를 구실로 자기 자식과 교유하며 지낼 것을 종용했는데, 이에 격분하여 과장 출입마저 수치스럽다 하여 끝내 과거에 응하지 않았다.

이항로의 이기론(理氣論)은 주리(主理)적 철학 입장을 고수하여 이(理)와 기(氣)는 대등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理)를 중요시하는 주리설(主理說)은 객관적 측면에서 보자면 논리적 약점을 피할 수 없지만 당시 내외회환의 상황에서 순선(純善)을 지향하고 대의(大義)를 실천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영남의 이진상(李震相), 호남의 기정진(奇正鎭)과 더불어 한말 주리철학(主理哲學) 3대가로 일컬어졌다.

이항로는 주리철학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한말(韓末) 위정척사(衛正斥邪) 의리론(義理論)의 대표자로서 일본과 서양의 침략에 대한 민족적 저항의식의 선봉이 되었다. 문하(門下)에서 척사위정(斥邪爲正)과 창의호국(倡義護國)의 중심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그중 박문일과 그의 동생 박문오는 관서지방을 대표하는 유학자로 화서학파가 관서지방에 뿌리를 내리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박은식(朴殷植)은 1884년(26세)에 영변의 산중 생활을 마치고 평안북도 태천에서 제자를 기르고 있던 박문일(朴文一)과 그의 아우 박문오(朴文五)를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는다.

박은식은 박문일과 박문오 형제로부터 주자학을 체계 있게 배웠다. 박문일은 뒷날 자신의 저서 『운암집』에서 박은식을 평하여 “세상에서 문장을 논한다면 반드시 박은식을 손꼽는다.”라고 하였다.

박은식이 청년기에 수학한 계보를 세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가학으로 부친 박용호로부터 주자학과 과거를 위한 시부(詩賦)를 배운 것이다. 박은식은 이 때 주자를 존송했으며 또한 초학인 만큼 그 영향도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다. 정통파

주자학도로서 교육받으면서 주자학도로서 자기를 정립하기 시작하였다.

둘째는 다산 정약용의 실학을 수학한 것이다. 이는 주자학도로서의 박은식의 사상체계 안에 주자학을 내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맹아를 심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는 박문일의 문하에서 주자학을 더욱 깊이 본격적으로 수학한 것이다. 당시 관서의 큰 학자인 박문일의 문하에서 주자학을 더욱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수학함으로써 조선 성리학의 계통을 제대로 전수받게 된다.

전병훈(全秉薰)은 본관이 정선(旌善)이고 평안북도 출신으로 고종 29년(1892)에 의금부 도사, 대한제국 광무 3년(1899)에 중추원 의관을 지냈다. 순종이 즉위하던 해(1907)에 관직을 버리고 중국 광둥으로 건너가 정신연구에 몰두하였다. 10년 동안 도교의 수련과 『도장(道藏)』을 연구한 다음 61세 때 도를 체득하여 북경에 정신철학사를 세우고 활동하였다. 북경에서 활동하면서 우남전(于藍田), 서변선유사(西邊宣諭使)인 정몽찰(丁夢刹), 육군중장인 강수기(江壽琪) 등을 제자로 삼았다.

자는 서우(曙宇), 호는 성암(成菴) 외에도 취당(醉堂)이 있으며 도호는 현빈도인(玄牝道人)이다. 서우란 ‘우주 안의 새로 열리는 서광(宇內之新開曙光)’이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1920년에 저서 정신철학통편(精神哲學通編)이 북경에서 출간되었다

정신철학통편(精神哲學通編)은 6권 2책을 되어 있으며 속 표제는 ‘정신심리도덕정치철학통편(精神心理道德政治哲學通編)’으로 되어 있다. 권1 정신철학통편, 권2 심리철학, 권3·4 도덕철학, 권5·6 정치철학의 순이다.

책머리에 엄복(嚴復)·강유위(康有爲) 등 당대 중국 사상계의 원로들과 전 양광총독(前兩光總督) 장준(張駿) 등 한림 출신 명사들이 이 책에 대한 논평을 싣고 있음을 볼 때 전병훈의 활동 영역과 비중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에서 유교·불교·도교의 전통사상과 서양철학을 종합하여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새로운 통합사상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첫머리에 실린 <단군천부경주해>는 전병훈이 추구하는 통합의 중심이 한국인의 민족종교적 심성임을 보이고 있다.

소크라테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 등 서양 고대철학자에서부터 데카르트·칸트·몽테스키외·아담 스미스 등 근대사상가에 이르기까지 서양사상을 긍정적으로 섭취하였고 특히 칸트의 <세계정부론>과 <영구평화론>을 극찬한다.

전병훈 자신도 <세계일통공화정부헌법9조>를 제시하면서 파리강화회의와 함께 고조된 세계평화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 근대사상사에서 매우 특징 있는 저술로서, 종교학·철학·심리학·윤리학·정치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근대 상황에 직면하여 전통적 통합논리를 제시하고자 한 저술이다.

후에 박문일은 1866년(고종 3) 사복시주부(司僕寺注簿)·평안도도사(平安道都事)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으며, 1882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 등의 직이 내려졌으나 모두 사퇴하였다.

전통적 유학자로 오직 도학에 전념하면서 후진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자주 서울에 출입하였으나 권문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1866년 병인양요 때는 말 한필로 상경하여 당시 실권자였던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과 더불어 나랏일을 걱정하기도 한 기개가 있었다.

1882년 요동(遼東)에 전쟁의 화기(禍機: 재변이 드러나지 않고 잠겨있는 기틀)가 박두할 기색이 있자 고향인 태천에 사창(社倉)을 설치하게 하고 병기를 갖추어 동태를 살피게 하였다. 같은 문인인 김평묵(金平默)·유중교(柳重敎)·최익현(崔益鉉)과 교분이 두터워 경전에 관한 문답의 서신내왕이 많았으며, 임헌회(任憲晦)와는 이기설(理氣說)에 관한 의견교환을 많이 하였다. 사서에 대한 해석인 「경의해(經義解)」를 잡저로 남겼으며, 저서로는 『운암집(雲菴集)』 12책이 있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참고문헌>

위키백과

신용하, 『박은식의 사회사상연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박문오(朴文五, 1835-1899)

박문오는 본관은 밀양(密陽)이고 자는 대화(大化), 호는 성암(誠菴)이다. 아버지는 박도정(朴道精)이다. 이항로(李恒老)의 문인이다. 형 박문일과 함께 관서지방에서 당시 으뜸가는 학자라는 찬양을 받았다.

스승 이항로는 1808년(순조 8) 반시(泮試: 한성초시)에 합격하였으나 당시 권력층의 고관이 과거급제를 구실로 자기 자식과의 친근을 중용하자, 이에 격분하여 과장의 출입마저 수치스럽다 하여 끝내 과거에 응하지 않았다.

그의 이기론(理氣論)은 주리(主理)적 입장을 고수하여 이(理)와 기(氣)는 대등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理)를 중요시하는 그의 주리설(主理說)은 조선이 처한 내우외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순선(純善)을 지향하고 대의(大義)를 실천하는데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영남의 이진상(李震相), 호남의 기정진(奇正鎭)과 더불어 한말 주리철학(主理哲學) 3대가로 일컬어졌다.

이항로의 주리적 입장은 19세기에 발생한 심설논쟁(心說論爭)과 연관된다. 조선 사회 내부의 경제적 사회적 모순의 격화와 서양의 문화적 군사적 충격에 직면한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시대를 배경으로 심설논쟁이 발생하였다. 당시 유학자들 중 상당수가 조선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타개책을 모색하면서 그 이념적 지향으로 주재(主宰)하는 이(理)를 중심에 둔 이른바 주리(主理)적 입장을 취하였다.

성주를 중심으로 하는 영남지역의 한주학파(寒洲學派)에서 주장하는 심즉리(心卽理), 존화양이(尊華攘夷)를 소리 높여 외친 호남과 강우지역의 노사학파(蘆沙學派)에서 주장하는 심지명덕(心之明德), 위정척사의 맹장들을 많이 배출한 기호지역의 화서학파(華西學派)에서 주장하는 심주리(心主理) 등이다.

이항로는 주리철학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한말(韓末) 위정척사(衛正斥邪) 의리론(義理論)의 대표자로서 일본과 서양의 침략에 대한 민족적 저항의식의 선봉이 되었다. 그의 문하(門下)에서 척사위정(斥邪爲正)과 창의호국(倡義護國)의 중심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그중 박문오와 그의 형 박문일은 관서지방을 대표하는 유학자로 화서학파가 관서지방에 뿌리를 내리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박문오는 경학(經學) 연구에 전심하는 한편, 서당을 세워 제자들을 가르쳤다. 고종 때 판서 남정철(南廷哲)이 기자묘수호소(箕子墓守護所)를 설치하여 도내에서 학문과 덕행이 높은 인사를 뽑을 때 입직수호생(入直守護生)과 주학교수(州學教授)로 임명되자 사퇴하였다가 주위의 권유로 보름 동안 근무한 적이 있었다. 뒤에 덕천군수를 지냈다. 저서로는『성암집(誠菴集)』이 있

다.

『성암집』은 4권 4책으로 된 활자본이다. 1904년 아들 동흠(東欽)이 편집하고 제자 이윤실(李允實) 등이 간행하였다. 권두에 김학진(金鶴鎭)의 서문과 권말에 박은식(朴殷植)과 김병훈(金秉薰)의 발문이 있다.

서(書)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문을 하는 데 필요한 지경궁리(持敬窮理) 또는 수정지방(守靜之方)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 것과 시체에 관한 의견을 적어 수령들에게 보낸 것이 많다. 소에는 교수를 맡을 학행 있는 선비를 천거하라는 왕의 하교에 대한 회답 상소가 있다.

잡저 중 「존심양성설(存心養性說)」에서는 존(存)과 양(養)은 사(事)이고 심(心)과 성은 하늘에서 받은 것이므로 존심양성은 곧 하늘을 섬기는 일이라 전제하고, 애친(愛親)하는 마음을 보존하여 양인(養仁)하는 성을 삼으며 경군(敬君)하는 마음을 보존하여 의(義)의 성(性)을 기르는 것이라고 하는 등 척사의 입장에서 유학이론을 천명하였다.

「이기설(理氣說)」에서는 주자(朱子)의 말을 인용, 마음의 허령지각(虛靈知覺)이 하나이지만 혹은 형기(形氣)의 사사로움에서 생겨나고 혹은 성명(性命)의 바른 것에 근원한다고 전제하고 이항(李滉) 등의 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길로 가는 데 각기 중한 것을 취한 것이라고 설파하였다. 이밖에 성리(性理)를 설명한 「천리인욕변(天理人慾辨)」과 「심성정의변(心性情意辨)」이 있다.

<참고문헌>

『성암집(誠菴集)』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서상열(徐相烈, 1854-1896)

서상열은 본관이 대구(大丘)이고 일명 상열(相說)이라고도 한다. 자는 경은(敬殷)이고 호는 경암(敬庵)이다. 충청북도 단양 출신이다. 장신(將臣) 문유(文裕)의 증손으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릴 때는 지친인 서광범(徐光範, 1859-1897)의 도움을 받았으나 박영효(朴泳孝)와 친히 지냄을 보고 멀리하였다.

서광범은 박규수(朴珪壽)·오경석(吳慶錫)·유흥기(劉鴻基) 등의 영향을 받아 1879년경 김옥균(金玉均)·박영효(朴泳孝) 등과 개화당을 조직하였다. 1880년 증광별시 문과에 급제한 뒤 규장각대교(奎章閣待敎)·규장각검교(奎章閣檢校)·홍문관부수찬(弘文館副修撰)·홍문관부응교(弘文館副應敎)·세자시강원 겸 사서(世子侍講院兼司書)·세자시강원 겸 필선(世子侍講院兼弼善)·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참의군국사무(參議軍國事務) 등을 지냈다.

1882년 4월 김옥균을 수행해 일본의 국정을 시찰하고 귀국한 뒤 9월 수신사 박영효의 종사관으로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1883년 3월 귀국하였다. 같은 해 6월 보빙사(報聘使) 민영익(閔泳翊)의 종사관으로 미국의 주요 도시 시설을 시찰하고 유럽 각국을 순방하고 다음 이듬해 6월에 귀국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차례의 외유를 통해 개화·자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리하여 1884년 12월 개화당의 일원으로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서상열은 무과에 급제하였지만 밀렌도르프(Mollendorf, P. G. von, 穆麟德)가 조정에 입사하게 되자 이를 통탄하고 김평묵(金平默)과 유중교(柳重敎)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파울 게오르크 폰 밀렌도르프는 독일 할레대학에서 법학과 동양어를 전공하고 청나라 주재 독일영사관에서 근무하였다. 1869년 청의 세관리(稅關吏)로 일하다가 이홍장(李鴻章)의 추천으로 조선의 통리아문(統理衙門) 참의(參議)·협판(協辦)을 역임하면서 외교와 세관업무를 맡았다. 재정고문으로 민씨 세력의 지지를 받았으며 당오전(當五錢)을 발행하여 재정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당오전 발행은 백성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개화파와 대립하였다. 1884년 갑신정변 때는 김옥균(金玉均)의 개화파에 반대하였고, 민씨 척족세력을 도왔다. 외무협판에 재직 중인 1885년에 이홍장의 압력으로 해임되었고 한국을 떠나 중국 Ningbo(寧波)에서 죽었다. 한국 역사에 조예가 깊고 만주어에 능통하였다.

김상열의 스승 김평묵은 24세에 이항로를 찾아가 배우고 또 홍직필(洪直弼)을 찾아 배우는 등 학업에 매우 전념하였다. 두 선생을 동시에 따른 관계로 학설은 넓고 온건하였다. 1852년(철종 3) 홍직필이 죽은 뒤로는 다시 이항로의 학설을 따라 심즉리(心卽理)의 설에 기울여졌다. 같은 문하의 유중교(柳重敎)와는 대학의 명덕(明德)을 이로 보느냐 기로 보느냐의 견해 차이로 당시에 큰 논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1874년에 스승의 『화서아언(華西雅言)』을 편집하여 간행했다. 1880년에 선공감가감(繕工監假監)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유중교는 5세에 이항로의 문하에 나아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총명하기가 어른과 같았다. 아이들과 놀기를 싫어하고 다만 경적(經籍)에만 몰두했다. 김평묵(金平默)에게 배우고 21세 때 이항로의 『송원화동사합편강목(宋元華東史合編綱目)』을 편수했다. 선공감역(繕工監役)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1886년 이항로의 심설(心說)에 대해 김평묵에게 「논조보화서선생심설(論調補華西先生心說)」을 보냄으로써 사칠논쟁(四七論爭)이나 호락논쟁(湖洛論爭)에 버금가는 대논쟁이 이항로 문하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유중교는 심(心)을 기(氣)로 규정하고 이항로 및 김평묵은 심을 이(理)로 규정함으로써 스승의 설과 정면충돌하게 되었다. 여기에 문인들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논쟁은 더욱 확대되고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1888년에는 두 설을 절충해 「화서선생심설정안(華西先生心說正案)」을 김평묵에게 보냄으로써 잠정적으로 심설 논쟁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그의 임종 직전에 문인들에게 정안(正案)의 문자(文字)는 '다시 생각해보니 사실과 도리에 모두 맞지 않는다.' 하여 거두어들이 것을 명함으로써 결국 두 설은 합일을 보지 못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서상열의 학문을 조정에서 인정하여 선전관을 제수하고 장차 통정(通政)의 계급에 올려 세자의 사부로 초빙하고자 하였으나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갑신정변 후 세상을 비관하더니 갑오경장의 충격으로 병석에 눕기까지 하였다.

그 뒤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거의 할 것을 결심하고 이춘영(李春永)·안승우(安承禹) 등과 의병을 일으켜 제천으로 들어가 이필희(李弼熙) 의진(義陣, 의용병의 군진)의 참모가 되었다. 충주·영월을 거쳐 안승우 의진과 회합하여 유인석(柳麟錫)을 만나 그를 의병장으로 추대하였다.

그 뒤 제천에서 안승우와 홍사구(洪思九)가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의진을 강화하려고 영춘·정선을 거쳐 황해도·평안도로 진출하여 모군하려 하였다가 도중에 적과 여러 차례 접전하였는데 낭천(狼川)에서 교전 중 순국하였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육의사열전(六義士列傳)』

『기려수필(騎驢隨筆)』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성만징(成萬徵, 1659-1711)

성만징은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자는 달경(達卿)이고 호는 추담(秋潭)·환성당(喚醒堂)이다.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이다.

권상하는 송시열의 수제자로 제자 가운데 김창협(金昌協), 윤증(尹拯) 등 출중한 인물이 많았으나, 스승의 학문과 학통을 계승하여 훗날 ‘사문지적전(師門之嫡傳)’으로 불렸다. 숙종 연간 1689년에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득세하여 송시열이 다시 제주에 위리안치 되고 이어서 사약(賜藥)을 받게 되는데, 그는 유배지로 달려가 스승의 임종을 지켰고 의복과 서적 등의 유품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 후 송시열의 유언에 따라 괴산 화양동(華陽洞)에 만동묘(萬東廟)와 대보단(大報壇)을 세워 명나라 신종과 의종을 제향하였다.

학술적으로 이이-송시열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학통을 계승하고 그의 문인들에 의해 전개되는 이른바 호락논변(湖洛論辨)이라는 학술토론 문화를 일으키는 계기를 주었다. 애초에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의 동이논쟁(同異論爭)인 호락논변이 제자 이간(李柬)과 한원진(韓元震) 사이에 제기되자 ‘인성이 물성과 다른 것은 기(氣)의 국(局) 때문이며, 인리(人理)가 곧 물리(物理)인 것은 이(理)의 통(通)때문이다.’고 한 이이의 이통기국(理通氣局)설을 들어 한원진의 상이론(相異論)에 동조하였다.

성만징은 한원진(韓元震)·이간(李柬)·윤봉구(尹鳳九)·채지홍(蔡之洪)·이이근(李頤根)·현상벽(玄尙璧)·최징후(崔徵厚) 등과 함께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라 불렸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인물성동이본변(人物性同異論辨)이 활성화 되었다. 이 논쟁은 지역적으로 낙파(洛派)와 호파(湖派)로 나뉘어 격론을 벌였다. 성만징은 ‘성은 곧 이(性卽理)’라는 설과 ‘이기가 혼융(混融)하다’는 설을 내세워 낙파의 설을 지지하였다.

1703년 학행으로 천거되어 내시교관(內侍敎官)·왕자사부(王子師傅) 등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1704년 만동묘(萬東廟)의 향사(享祀)를 둘러싼 논쟁 때 송시열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예학에 밝았으며, 문경의 한천사(寒泉祠)에 배향되었다. 시문집인 《추담문집》이 있다.

『추담문집』은 8권 3책으로 된 목활자본이다. 1926년 후손 해중(海重)이 편집하고 간행하였다. 권말에 7대손 석(釋)의 발문이 있다.

시에선 차운(次韻)·증별(贈別) 또는 만시(輓詩)가 많고, 기타 영물(詠物)·감회를 나타낸 것도 상당수 있다. 「우음(偶吟)」은 『대학』을 300번 읽고 3개월의 정좌 끝에 깨달은 바를 읊긴 시라고 주석되어 있다. 「별이주경세척연행(別李周卿世奭燕行)」과 「유감(有感)」에서는 청나라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서 중에는 이세필(李世弼)과 교환한 서찰이 많은데, 여러 선생의 예설(禮說)을 분류하고 편차(編次)하여 심도 있게 논구한 내용이 들어 있다. 권상하(權尙夏)에게 올린 문목(問目)에는 이기설과 경전에 대한 훈고(訓詁)·예설 등이 있다.

예설에 관해서는 혼례 때 신랑·신부의 위치와 음식을 진설하는 방법이 이유태(李惟泰)의 집안에서 쓰는 고례(古禮)와 주희(朱熹)의 『가례(家禮)』가 서로 다른 것에 관해 묻고, 이어 서동부서(壻東婦西)로 된 고례의 서부즉석설찬도(壻婦卽席設饌圖)를 그려 넣고 있다. 기타의 서에도 성리설과 예설에 관한 내용이 많다.

잡저의 「만동사시비변(萬東祠是非辨)」은 당시 만동묘(萬東廟)에 있는 명나라 신종의 신위를 두고 일부에서 선비가 천자를 제사하는 것은 외람된 일이라는 등의 시비가 있자, 그에 대해 반박한 글이다.

<참고문헌>

국역조선왕조실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송능상(宋能相, 1709-1758)

송능상은 본관은 은진(恩津)이고 자는 사룡(士龍), 호는 운평(雲坪) 또는 동해자(東海子)이다.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현손이다. 송시열의 학맥을 계승한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수제자인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의 문인이다.

송시열은 효종과 동심동력하여 설욕을 꾀고자 북벌을 준비한 당대의 거유로 소중화(小中華), 존화양이(存華攘夷) 등 춘추의리(春秋義理)의 화신이였다. 도학에는 정암 조광조요 학문에는 퇴계 이황이요 성리에 율곡 이이라고 하는데 조선 역사를 통틀어 의리에 관해서는 우암 송시열을 으뜸으로 삼는다. 그의 학문은 제자 권상하를 거쳐 한원진 - 송능상 - 송환기, 김정묵 - 송치규 - 송달수, 송근수 - 송병선, 송병순으로 이어지는 학맥을 이룬다.

권상하는 송시열의 수제자다. 송시열 제자 중에는 김창협(金昌協), 윤증(尹拯) 등 출중한 인물이 많았으나 스승의 학문과 학통을 계승하여 훗날 '사문지적전(師門之嫡傳)'으로 불렸다. 숙종 연간 1689년에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득세하여 송시열이 다시 제주에 위리안치 되고 이어서 사약(賜藥)을 받게 되는데, 유배지로 달려가 스승의 임종을 지켰고 의복과 서적 등의 유품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 후 송시열의 유언에 따라 괴산 화양동(華陽洞)에 만동묘(萬東廟)와 대보단(大報壇)을 세워 명나라 신종과 의종을 제향했다. 학술적으로 그는 이이-송시열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학통을 계승했다. 문하에서 공부하던 이간과 한원진을 거쳐 이른바 호락논변(湖洛論辨)이 발생한다. 권상하는 한원진의 입장을 견지한다.

한원진은 권상하의 수제자다. 자는 덕소(德昭)이고 호는 남당(南塘)이다. 세종 때 영의정을 지낸 상경(尙敬)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통덕랑 유기(有箕)이다. 권상하(權尙夏)의 문하의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 중 한 사람이다.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 호론(湖論)인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주장한 대표적 인물이다. 저서로는 『남당집』이 있으며, 편저로는 『임시취고(臨時取考)』, 『경의기문록(經義記聞錄)』, 『퇴계집소석(退溪集疏釋)』, 『의례경전통해보(儀禮經傳通解補)』, 『장자변해(莊子辨解)』, 『선학통변(禪學通辨)』, 『왕양명집변(王陽明集辨)』, 『거관록』, 『심경부주차기(心經附註筭記)』, 『춘추별전(春秋別傳)』, 『근사록주설(近思錄註說)』,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 『가례소의의록(家禮疏擬疑錄)』, 『가례원류의록(家禮源流疑錄)』, 『고사편람(古事便覽)』 등이 있다. 많은 저술 가운데 1741년 저술한 『주자언론동이고(朱子言論同異攷)』는 송시열과 권상하를 거쳐 50년 만에 완성된 한국 성리학사상의 저작이다.

『주자언론동이고』는 6권 3책으로 1741년(영조 17)에 완성되었다. 이 책은 송시열이 1689년(숙종 15)에 착수했지만 그가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죽자 그의 문인인 한원진이 스승의 유업을 이어 이룩한 유학 사상의 대작이다.

한원진은 후인들이 주자의 논설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자와 같은 성인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도(道)가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자를 알기 위해서는 주자를 알아야 하고 주자를 모르고서는 공자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자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生而知之者)이므로 그 말의 처음과 끝이 한결같으나, 주자는 배워서 아는 사람(學而知之者)이므로 초년설과 만년설이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주자의 설에 대해 시간상의 선후와 의리(義理)라는 표준을 세우고 말은 비록 다르더라도 내용에 있어서는 뜻이 서로 통하는 것, 본래는 다름이 없는 것인데 학자들이 다르게 본 것 등으로 나누어 일일이 변정하였다. 이 책에서는 조선조 성리학의 핵심 문제들을 주자의 만년정론(晩年正論)으로 확정해 풀어어나가는 것이 주목된다.

첫째, 기(氣)는 유위(有爲)로써 발동하는 것이고, 이(理)는 무위(無爲)로써 무발동이라 하여 퇴계학파의 이발(理發)을 부인하고 있다. 둘째,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에 대해 둘이 모두 성의 용(性之用)으로서 정(情)이라는 이이(李珥)의 설을 확인하고 있다. 셋째,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에 대해서는 한원진의 인물성상이(人物性相異)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넷째, 이기선후(理氣先後)에 대해서는 유행의 면에서는 이기무선후이고, 본체론으로 보면 이선기후이며, 발생에서 보면 기선이후이나 이기(理氣)는 원래 선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마지막으로 이동기이(理同氣異)에 대해서는 이통기국(理通氣局)이라는 이이의 입장인 이일분수(理一分殊)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이의 학설을 충실히 계승하고 나아가 본인이 주장하는 호론(湖論)을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서술된 저작임을 보여준다.

송능상은 1739년(영조 15) 5월 송인명(宋寅明)이 왕세자를 가르칠 적합한 인물로 다섯 명을 천거하였는데 그 중 한 명에 들어 시강원 자의가 되었다. 이듬해 3월 춘추의리를 강조하여 원수를 갚고 치욕을 씻는 의리를 논하였다. 1744년 이후 여러 차례 장령에 임명되었다.

1750년 정우량(鄭羽良)이 우리나라의 도통(道統)에서 김장생(金長生)을 넣지 않고, 윤증(尹拯) 부자를 언급하자 노론의 입장에서 도통에 대하여 아뢰었다. 1752년 8월과 12월에 계속 장령에 임명되었고 1754년과 1755년 두 차례 집의에 임명되었다. 1758년 묘향산에 들어가서 『대학』을 강론하다가 객사하였다. 자품이 고매하고 규모가 정대하였다고 한다. 경학·예학 등에 밝았다. 저서로는 『운평문집』이 있다.

『운평문집』은 문학적인 면보다는 학술적인 면이 두드러진다. 시 역시 학문적인 제재가 많다. 서(書)에는 스승 한원진(韓元震)을 비롯해 윤봉구(尹鳳九)·이재(李穡)·임성주(任聖周)·송환기(宋煥箕) 등 노론 학자들과 학문에 관하여 문답한 서한이 많다.

기의 「종회사사실기(宗晦祠事實記)」·「종회사이건기(宗晦祠移建記)」는 송시열(宋時烈)이 청주 화양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을 훈도하던 곳에 김천택(金天澤)·민익수(閔翼洙) 등이 세운 사묘(祠廟)인 종회사에 관한 기록이다. 종회사는 송시열이 정계에 등장하기 전의 복거지(卜居地)인 동시에 말년에 퇴거한 곳이다. 따라서 이 기록은 송시열의 족적을 살펴보는 데 참고가 된다.

「간서잡록(看書雜錄)」은 『악기(樂記)』, 『맹자』, 『장자(莊子)』에 관한 연구서로, 도량형에 관한 자의(字義)를 고증해놓은 것이 있어 흥미를 끈다. 규(圭)·찰(撮)·초(抄)·작(勺)·합(合)과 되[升]·말[斗]·섬[石] 등 양(量)에 관한 단위, 서(黍)·누(黍)·수(銖)·냥(兩)·근(斤)·균(勻)·석(石) 등 무게의 단위가 고증되어 있어 도량형 연구에 도움이 된다.

「독례수차(讀禮隨筭)」는 『의례』에 관한 규정을 초록해놓은 것이다. 「제목주의(題木主議)」는 『가례』에 관한 의논을 기록해놓은 것이다. 「비래강록(飛來講錄)」은 『대학』에 대한 제자 문흠(文欽) 등의 문의에 답변한 강의록이다. 「독서법(讀書法)」에서는 글을 읽는 방법으로서 삼도(三到)·삼요(三要) 및 문장구조의 형태법 설명인 십이법(十二法)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역조선왕조실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박기종(朴淇鍾, 1824-1898)

박기종은 본관은 무안(務安)이고 자는 공진(公振), 호는 죽포(竹圃)이다. 감찰(監察) 혁수(赫修)의 아들이다. 처음 김상철(金相轍)에게 수학했고 홍직필(洪直弼)의 문하에서 이기설(理氣說)에 몰두하였다.

스승 홍직필은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났는데 7세 때 이미 문장을 지었다. 17세에는 이학(理學)에 밝아 성리학자 박윤원(朴胤源)으로부터 오도유탁(吾道有托: 올바른 도를 맡길 만함.)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1801년(순조 1) 부모의 권유로 사마시에 응시해 초시에 합격했으나 회시에서 실패하였다. 이로부터 성리학에 전념하였다.

당시의 원로 숙유인 송환기(宋煥箕)·이직보(李直輔)·임로(任魯) 등과 연령을 초월해 교류하였다. 특히 오희상(吳熙常)과 가장 오래 교류했는데, 그로부터 유종(儒宗: 유학자의 으뜸)이라 일컬어졌다. 또한 이봉수(李鳳秀)로부터는 학문이 가장 뛰어나다는 칭찬을 받았다.

그의 학문은 궁리(窮理)를 근본으로 하고 육경(六經)은 물론 제자백가에 통달하였다. 천지음양귀신(天地陰陽鬼神)의 묘와 역대흥망치란(歷代興亡治亂)의 자취와 산천풍토인물족계(山川風土人物族系)에 이르기까지 두루 통하였다. 한원진(韓元震)의 심선악설(心善惡說)과 임성주(任聖周)의 “성선(性善)은 곧 기질(氣質)이다.”는 주장도 반대하였다.

박기종은 1861년(철종 12)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사간원정언·이조정랑 등을 지냈다. 1874년(고종 11) 시폐(時弊)를 논한 상소, 1882년 임오군란으로 인한 국정문란의 대책을 논한 상소, 1884년 갑신정변에 대한 대책을 논한 상소를 올렸다. 내용들은 위정척사(衛正斥邪)의 관점을 기반으로 한다.

1890년 일본세력이 횡행함에 분을 참지 못하여 치사(致仕, 관직을 사직함)하였다.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진압에 힘썼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단발령이 내리자 결연히 의병의 뜻을 품었으나 병고로 이루지 못하였다. 저서로는 『죽포집』이 있다.

죽포집은 10권 4책으로 된 목활자본이다. 1912년 동문 송영술(宋榮述)·고태주(高兌柱) 및 동족 우상(禹相)·홍상(洪相)·기룡(淇龍) 등이 편집하여 간행했다. 권두에 기우만(奇宇萬)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사종질(四從姪) 순상(舜相), 사위 오근후(吳根厚), 족질 임상(琳相) 등의 발문과 나경성(羅經成)의 후서가 있다.

소의 「갑술봉소(甲戌封疏)」는 1874년(고종 11)에 사헌부장령으로 당시의 시폐(時弊)를 지적하여 올린 것이다. 「임오봉소」는 임오군란으로 인한 국난을 6가지 조목으로 나누어 올린 글이다. 「갑신봉소」는 갑신정변 때의 정황을 적고 그 대책을 강구한 내용 등이다. 당시의 정세나

사회상을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들이다.

서(書)는 일반적인 문집처럼 경의(經義)를 논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정치·사회상의 문제점을 논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높다.

잡저에는 『삼국지』에서 지금까지 논란거리가 되어온 인물의 평이나 주요 사건에 대한 시비를 나름대로 평한 「독삼국지(讀三國志)」와 벼슬에 있으면서 올린 서계(書啓)·관문(關文)·보장(報狀)과 일반 백성에게 내린 통문 등이 실려 있다.

「금잡기(禁雜技)」는 잡기에 대한 폐해를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흥미 있는 내용이다.

<참고문헌>

『죽포집(竹圃集)』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소휘면(蘇輝冕, 1814-1889)

소휘면은 본관은 진주(晉州)이고 자는 순여(純汝), 호는 인산(仁山)이다. 아버지는 형술(亨述)이다. 익산에서 출생하였다. 홍직필의 문인이다.

스승 홍직필은 9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엄한 훈육을 받으며 할아버지 수구(洙渠)에게 학업을 닦아 20세 이전에 문명을 떨쳤다. 홍직필 문하에서 전병순(田秉淳)·조병덕(趙秉憲)·한운성(韓運聖)·임헌회(任憲晦)와 함께 매문오현(梅門五賢)으로 일컬어졌다.

1858년 도백(道伯)이 소휘면의 학행을 조정에 천거하였다. 1881년 선공감가감역을 제수 받았으며 곧 전설시별제(典設寺別提)에 제수되었다. 그 뒤 전라도사로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아니하고, 1882년 사헌부지평에 제수되었으나 역시 취임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후학을 교육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였다. 저서로는 『인산문집(仁山文集)』 17권이 있다.

『인산문집』은 17권 8책으로 된 목활자본이다. 서문과 발문이 없어 자세하지는 않으나 1900년에 간행된 듯하다.

서(書)는 이 문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홍직필(洪直弼)·송내희(宋來熙)·조병덕(趙秉憲)·전우(田愚) 등 당시 이름난 학자 및 제현들과 주고받은 것이다. 대부분 경전의 내용이나 성인들의 행동에 대한 의문점, 도학의 원리에 대한 의논과 후학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들이다.

특히, 조병덕·구인조(具寅祖)·조장하(趙章夏)·이선식(李善植)·권성문(權聖文) 등 기호학과 학자들과는 많은 양의 편지를 통해 학문적으로 상당히 깊이 있는 문제를 토의하고 있다. 이 중 「상숙재조장(上肅齋趙丈)」은 조병덕에게 학문을 하면서 평소 품고 있던 여러 가지 의문점을 묻고 있다. 주로 『중용』의 성(性)·도(道)·교(教)에 대해 다루었다. 미발설(未發說)에 대해 주희(朱熹)의 생각에 반론을 제기한 점이 주목된다.

잡저 중 「용현론(用賢論)」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용현이 급선무임을 주장한 것이다. 「혹인문답(或人問答)」은 어떤 사람이 이이(李珥)의 『경연일기(經筵日記)』 중 의심스러운 곳을 질문한 것에 답한 글로 율곡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간서차록(看書筭錄)」은 수필 형식의 짙막한 독후감으로, 수록된 내용이 다양한데, 주로 우리나라와 중국 선유들의 말이나 왕복서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 주석을 달거나 시사와 관련시켜 풀이한 글이다.

「현강기문(玄江記聞)」 역시 「간서차록」과 마찬가지로 수필 형식의 글이다. 자신의 의견을 시사와 관련하여 논한 것이다. 저자의 깊고 해박한 지식과 당시 시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엿볼 수 있다. 「혼례동뢰설위도(婚禮同牢設位圖)」는 기호지방 사대부가의 혼례 상차림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인산문집(仁山文集)』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신응조(申應朝, 1804-1899)

신응조는 본관은 평산(平山)이고 자는 유안(幼安), 호는 계전(桂田)·구암(苟菴)이다.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상현(常顯)의 아들이다. 대유학자 홍직필(洪直弼)의 문인이다.

1852년(철종 3)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이조정랑·부제학 등을 역임하였고, 1866년에 이조참판·대사헌, 1871년에 강원도관찰사, 1873년 형조판서·이조판서를 거쳐 이듬해 예조판서가 되었다.

1882년 7월 판부사(判府事)로 있으면서 왜양일체(倭洋一體)의 처지에 서서 사학(邪學)과 양술(洋術)을 배격하였다. 특히 인천개항은 삼남과 서북의 이권을 침탈당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지리상의 요지이기 때문에 최대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서양세력을 배척하고 수교 및 통상을 제한하려는 척사적 처지를 정책적 측면에서 주장했다.

임오군란 이후, 재집권한 대원군이 우의정으로 임명했으나 출사하지 않았다. 뒤에 좌의정에 올랐으며, 연로하여 퇴임한 뒤에는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문집으로 『구암집(苟庵集)』이 있다.

원래 『구암집』 127권이 필사본으로 가장(家藏)되어 오다가 6·25 때 없어지고 현재 전해지는 『구암집』은 이전에 전우(田愚)가 원본에서 직접 발췌·편집하여 필사한 것으로 원집 13권 속집 7권, 재속집 8권으로 모두 28권 14책이다. 전우의 제자인 이인구(李仁矩)에게 전수되어 비장(秘藏)해 온 것을 손자인 석희(錫羲)가 대본으로 제공함으로써 1993년 평산신씨종중이 영인·간행하였다.

「옥당시서진소회(玉堂時書進所懷)」는 신응조가 홍문관에 있을 때 경연(經筵)에서 철종(哲宗)을 모시고 강의한 것이다. 학문에 힘써 성군이 될 것을 당부하면서 자신의 소견을 상신하는 글이다. 서(書)는 이선영(李善永)·남공철(南公轍)·조병덕(趙秉憲)·임헌회(任憲晦) 등 당시의 명공 석학들과 주고받은 서한이 실려 있다. 주로 경전(經典)과 시사(時事)에 관한 논술이 많다.

잡저는 주로 선비가 심신(心身)을 단련하여 지덕(知德)을 계발하는 수양의 덕목인 「자성(自省)」·「경타(警惰)」·「징분(懲忿)」·「지과(知過)」·「방욕(防欲)」 등이 있다. 또한 인간의 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재화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과정을 논하는 「재원(財源)」·「용재(用財)」, 범죄를 행한 자에게 국가 권력이 과하는 제재에 대해 논한 「형벌(刑罰)」 등 다양한 제목을 제시한 논술이 많다.

속집의 잡저 81편은 78세 때 12일 동안 저술한 것으로 수필문학이다. 「비언」에서는 판부사(判府事)로 있을 때 왜양일체(倭洋一體)의 처지에 서서 사학(邪學)과 양술(洋術)을 배격하였다. 특히 인천 개항은 삼남과 서북의 이권을 침탈당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이 군사·지리

상의 요지이므로 큰 우려가 있음을 강조하여, 서양세력을 배척하고 수교 및 통상을 제한하려는 적사적 처지를 정책적 측면에서 주장하였다.

「설증」은 옛 문헌에서 확실한 증거를 찾아 경사(經史)를 설명하는 고증학(考證學)이다. 「설총」은 여러 학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이 책 가운데 「비언」은 조선 말기의 역사적 변천과정의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국역조선왕조실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병문(李秉文, 1826-1888)

이병문은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덕여(德汝)다. 이장현(李章顯)의 손자이며 이헌도(李憲度)의 아들로 좌의정 이헌구(李憲球)에게 입양되었다. 외할아버지는 김복순(金復淳)이다.

외할아버지 김복순은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김창집(金昌集)의 4세 손이자 부사를 지낸 김이중(金履中)의 아들이다. 조선 후기의 권문세가 안동 김씨 세도정치 기틀을 다진 김조순(金祖淳)과 친형제간이다. 여러 관직을 거쳐 황주목사, 광주목사를 지냈다. 사후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부친 이헌구는 1816년(순조 16)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829년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으며 그 뒤 성균관대사성·이조참의를 역임하고, 1836년(헌종 2)에 이조참판에 올랐다. 이듬해 전라도관찰사에 임명되고, 1841년 한성부판윤·공조판서·대사헌을, 이듬해 형조판서·예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844년 사헌부대사헌으로 김유근(金道根)·김홍근(金弘根)의 추죄를 주장하다가 덕원부에 유배, 이듬해 석방되어 사은 겸 동지정사로서 청나라에 다녀왔다.

1847년 형조판서·대사헌·한성부판윤을 역임하고, 1849년(철종 즉위년) 이조판서, 이듬해 예조판서·판의금부사를 역임하였으며, 1852년 우의정에 올랐다. 그 때 나이 69세로 치사(致仕)하기를 연이어 간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으며 바로 좌의정이 되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판중추부사·광주유수(廣州留守)를 역임하는 등 치정(治政)에 힘썼다. 70세가 되어 국가로부터 궤장(几杖)을 수여받고 기로소에 들어갔다.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청검(淸儉)하며 근면하기로 이름났다.

이병문은 1848년(헌종 14) 5월 증광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관직에 나아갔다. 1864년(고종 1) 충청도감사를 지내고 1867년에 이조참판이 되었다. 같은 해 9월에 예방승지를 거쳐 1870년 대사헌에 올랐다. 1874년에는 도총부도총관이 되었고 그해 12월에 형조판서에 승진되었다. 이듬해 4월에 진위 겸 진향정사(陳慰兼進香正使)로 부사 조인희(趙寅熙), 서장관 정원화(鄭元和)와 함께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지의금부사·한성부판윤을 역임하고, 1876년 재차 대사헌이 되었다. 이듬해에 『선원보(璿源譜)』 수정에 감인위원(監印委員)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1879년 다시 형조판서·예조판서·한성부판윤을 역임하고, 이듬해에 의정부우참찬·광주부유수(廣州府留守)를 거쳐 그해 12월 외직인 전라도관찰사가 되었다.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1882년에 예조판서가 되었으나, 이듬해 전라도관찰사 재직 시의 장물을 취득한 일로 인하여 원악도(遠惡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의 형을 받아 고금도에 유폐되었다가 1884년 2월에 향리로 돌아왔고, 그해 말에 풀려났다.

1885년에 복직이 되어 예조판서에 임명되었으며, 이해에 다시 판의금부사가 되었다가 그해 5월 이조판서가 되었다. 그 뒤 판의금부사·이조판서를 거쳐 그 해 10월 판돈녕부사가 되었고, 1886년 약원제조(藥院提調)를 지내고 1888년에 의정부좌참찬·판의금부사·판돈녕부사를 역임하였다. 시호는 효정(孝靖)이다.

<참고문헌>

국역조선왕조실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지수(李趾秀, 1779-1842)

이지수는 본관은 연안(延安)이고 자는 계린(季麟), 호는 중산재(重山齋)이다. 형신(衡臣)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희보(熙輔)이고, 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 명원(命源)이다.

19세에 서울로 올라가 족부(族父) 병원(秉源)에게 수학하였다. 병원은 인조의 3남인 인평대군(麟坪大君)의 6대손으로 아들이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昞應)이다. 1809년(순조 9) 사마시에 합격하고 1813년(순조 13)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가 되었다. 성균관전적·사간원정언을 거쳐 병조좌랑·시강원사서가 되고, 1825년 옥구현감으로 나갔다. 1831년 동부승지가 되고 1840년(헌종 6) 회양부사 등을 지내고 1842년 다시 동부승지가 되었다.

옥구현감으로 있을 때는 민폐를 없애고 백성을 구휼하는 한편 향약을 만들어 교화에 힘썼다. 동부승지가 되어서는 여러 차례 소대(召對 : 왕의 부름에 의한 대좌)에 응하여 국가기본정책을 건의하였다. 만년에는 향리에 돌아와 중산재를 짓고 후진교육에 힘썼다. 저서로는 『중산재집(重山齋集)』 8권이 있다.

『중산재집』은 8권 4책으로 활자본이다. 1858년(철종 9) 손자가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권두에 송달수(宋達洙)의 서문이 있다.

시에선 영회(詠懷), 또는 자연을 주제로 한 시가 많다. 「해인사유회고운(海印寺有懷孤雲)」은 해인사를 찾아가 최치원(崔致遠)의 유적을 돌아보고 옛일을 회고하는 시다. 「해금강(海金剛)」은 해금강의 경치를 노래한 것으로 서경의 표현 기교가 수준 높다.

소차는 「사승선환향겸진면학소(辭承宣還鄉兼陳勉學疏)」 등 사직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연설은 『맹자』 제3권 등을 경연에서 강의한 내용이다.

서(書)의 「상재상(上宰相)」과 「여이판서광정(與李判書光正)」에는 회양의 삼정 문란(三政紊亂), 특히 환곡의 폐단과 읍민의 비참한 실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밖의 글들에는 정도(正道)와 문법(文法) 등에 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잡저의 「황정십조(荒政十條)」는 당시의 시정 개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진심(盡心)·택인(擇人)·서력(紓力)·예비(豫備)·정초(精抄)·진급(賑給)·증간(戢奸)·금도(禁盜)·상벌(賞罰)·고적(古蹟) 등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가녀계사(家女戒辭)」는 여자가 출가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행동 규범을 상세히 기술한 것이고, 「책제(策題)」는 군자와 소인의 구별 방법, 인재 등용, 목민의 중요성 등을 기술한 내용이다.

<참고문헌>

국역조선왕조실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임헌회(任憲晦, 1811-1876)

임헌회는 본관은 풍천(豐川)이고 자는 명로(明老). 호는 고산(鼓山)·전재(全齋)·희양재(希陽齋)이다. 아버지는 천모(天模)이다. 송치규(宋穉圭)·홍직필(洪直弼) 등의 문인이다.

송치규는 송시열(宋時烈)의 6대손으로 김정묵(金正默)의 문인이다. 학문은 독서궁리(讀書窮理)를 근본으로 하고 반궁실천(反窮實踐)을 목표로 삼았다. 평생을 이이(李珣)와 김장생(金長生)·송시열의 전통을 이어받아 지키는 데 전념하였다. 1798년(정조 22) 경상도관찰사 한용화(韓用和)의 천거로 영릉참봉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이듬해 원자궁강학청료(元子宮講學請僚), 1800년 시강원자의(侍講院諮議)와 호조좌랑, 1801년(순조 1) 사헌부지평 등에 잇따라 임명되었지만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그 뒤에도 1804년 군자감정(軍資監正), 이듬해 사헌부집의, 1812년 세자시강원진선·공조참의, 1815년 시강원찬선·공조참판, 1816년 대사헌 등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당대의 거유로서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다. 평생을 두고 벼슬을 사양한 것은 스승 김정묵이 뜻하지 않은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유적(儒籍)에서 제적되었기 때문으로 전한다.

홍직필은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나 7세 때 이미 문장을 지었다. 17세에는 이학(理學)에 밝아 성리학자 박윤원(朴胤源)으로부터 오도유탁(吾道有托: 올바른 도를 맡길 만함.)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오희상(吳熙常)과 가장 오래 교유했는데, 그로부터 유종(儒宗: 유학자의 으뜸)이라 일컬어졌다. 또한 이봉수(李鳳秀)로부터는 학문이 가장 뛰어나다는 칭찬을 받았다. 학문은 궁리(窮理)를 근본으로 하고 육경(六經)은 물론 제자백가에 통달하였다. 한원진(韓元震)의 심선악설(心善惡說)을 반대하고 임성주(任聖周)의 “성선(性善)은 곧 기질(氣質)이다.”고 한 주장에도 반대하였다.

임헌회는 1858년(철종 9) 효릉참봉(孝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이듬해 다시 활인서별제(活人署別提)·전라도사·군자감정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1861년 조두순(趙斗淳) 등의 천거로 경연관에 발탁되었으나 역시 소를 올려 사직하였다. 1864년(고종 1) 장령·집의·장악정(掌樂正)이 되었고, 이듬해 호조참의가 되었다.

이 때 만동묘(萬東廟)의 제향을 폐지하라는 왕명이 내려지자 절대 부당함을 재삼 상소하여 다시 제향하게 하였다. 1874년 이조참판에 임명하고 승지를 보내어 나오기를 청하였으나 상소하여 사직하였다. 그 뒤 대사헌·좌주 등에 임명되었다.

경학과 성리학에 조예가 깊어 낙론(洛論)의 대가로서 이이(李珣)·송시열(宋時烈)의 학통을 계승하여 그의 제자인 전우(田愚)에게 전수하였다. 윤용선(尹容善)의 주청으로 내부대신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고산문집(鼓山文集) 20권이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고제 전우는 어려서부터 문장이 뛰어나 당시의 거유(巨儒)인 신응조(申應朝)의 권고로 고산(鼓山) 임헌회(任憲晦)에게서 20년 간 배웠다. 윤치중(尹致中)·서정순(徐廷淳)과 함께 임헌회의 고제(高弟)가 되었다. 학풍은 철저히 이이(李珥)·송시열의 사상을 계승하였다. 1882년(고종 19) 문벌로 선공감 감역(繕工監監役)·장령(掌令), 1906년(광무 10) 중추원 참의(中樞院參議) 등 보직이 있었으나 다 사퇴하고 말년에는 자손들도 버리고 서해의 계화도(界火島)에서 후진을 양성했다.

『고산문집』은 20권 10책, 속집 4권 3책, 부록 3권 3책, 합 27권 16책으로 목활자본이다. 1883년(고종 20) 임헌회의 문인 전우(田愚) 등이 편집하여 행했으며 부록은 1932년 김종학(金鍾學)이 간행하였다. 1937년 이인구(李仁矩)가 『전재문집(全齋文集)』이라는 제목으로 석판본 20권 10책을 간행했는데, 내용은 『고산문집』과 대동소이하며, 다만 편차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서(書)는 그의 스승인 송치규(宋釋圭)·홍직필(洪直弼)을 위시하여 김매순(金邁淳)·홍석주(洪奭周) 및 사우(士友) 조병덕(趙秉勳)·신응조(申應朝)·홍일순(洪一純)·김평묵(金平默)·이응진(李應辰)·소휘면(蘇輝冕), 그리고 문인 전우·서정순(徐政淳)·윤치중(尹致中) 등과 주고받은 것으로, 주로 경전·예설(禮說)·성리설·태극·심성(心性)·이기(理氣) 등에 관한 논술이 많다. 이항로(李恒老)의 문인 김평묵과 왕래한 서한은 ‘명덕(明德)’에 대한 기본적 견해가 명덕주기설(明德主氣說)과 명덕주리설(明德主理說)로 차이를 나타내면서 새로운 학파적 논변으로 발전되었다.

임헌회가 명덕을 심(心)으로 파악한 점은 화서학파와 같은 입장이었지만, “명덕이 중리(衆理)를 갖추고 있으며 만사(萬事)에 응한다.”는 점을 심(心)의 체(體)와 용(用)으로 파악하였다. 명덕은 비록 형이하(形而下)이지만, 갖추어져 있는 바의 이(理)는 곧 형이상이다. 그런 점에서 심(心)은 형이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갖추어져 있는바 소이연(所以然)으로 말한다면 형이상으로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명덕주리·주기의 분별은 명덕의 유위(有爲)·무위(無爲)의 여부를 관찰하여보면 알 수 있는데, 이(理)가 정의(情意)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관찰하여보면, 명덕은 정의가 있고 지각(知覺)이 있는 물사(物事)이며 이(理)는 단지 정의와 지각이 없는 물사이다. 따라서 명덕은 주기적인 입장에서 파악해야 하며, 주기적인 입장이라고 하여 이(理)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임헌회는 심(心)을 이(理)로 파악하는 김평묵 등의 논의는 기(氣) 위에 나아가 이(理)를 파악하지 않고 오로지 명덕에 갖추어져 있는 이(理)와 명덕의 허령불매(虛靈不昧: 마음이 거울같이 맑고 영묘하여 무엇이나 뚜렷이 비추어 일체의 대상을 명찰함)한 상태를 함께 이(理)로 파악하는 모순을 범했다고 지적하였다.

조병덕에게 답한 서한에서는 「맹자」의 ‘생지위성(生之謂性)’에 대해 “생한 것을 성(性)이라고 이른다”는 말은 대체로 생하기 전에는 성을 말할 수 없으며, 생이 있는 후에야 비로소 성이라 말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잡저 가운데 「이계(二誠)」는 부모의 상례(喪禮)를 성경(誠敬)으로 하고, 내외(內外)를 엄하게

해서 가도(家道)를 바르게 하라는 가법을 전하고 있다. 「예의쇄록(禮儀瑣錄)」은 당시 시행되고 있던 상제례(喪祭禮)의 불합리한 점을 논한 것이며, 「제찬도설(祭饌圖說)」·「거상의(居喪議)」·「조주체봉의(祧主遞奉儀)」·「조주매안의(祧主埋安儀)」 등에서는 상제의식(喪祭儀式)에 관한 해설과 도식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간서잡록(看書雜錄)」·「경의쇄록(經義瑣錄)」은 경전상의 난해한 어구에 대하여 제현의 설을 인용하고 고증·분석하였다. 「매산선생어록(梅山先生語錄)」은 홍직필의 문하에서 수학할 때 평소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다.

전 가운데 「화망건선생전(畫網巾先生傳)」은 명나라가 멸망한 뒤 춘추대의를 지켜 청나라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망건선생의 일화를 기록한 글로 조선 후기 위정척사론자(衛正斥邪論者)의 대명관(對明觀)을 알 수 있는 글이다. 여기서 임헌회가 대명유민(大明遺民)으로 자처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전재문집(全齋文集)』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전병순(田秉淳, 1816-1890)

전병순은 본관은 담양(潭陽)이고 자는 이숙(彝叔), 호는 부계(扶溪) 또는 겸窩(謙窩)이다. 전석채(田錫采)의 아들이다. 홍직필(洪直弼)의 문인으로 조병덕(趙秉德)·전우(田愚) 등과 교유하였다.

스승 홍직필은 어려서부터 재능이 출중하여 7세 때 이미 문장을 지었다. 그리고 17세에는 이학(理學)에 밝아 성리학자 박윤원(朴胤源)으로부터 오도유탁(吾道有托: 올바른 도를 맡길 만함.)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오랜 교유를 나눈 오희상(吳熙常)은 유종(儒宗: 유학자의 으뜸)이라고 평했다. 학문은 궁리(窮理)를 근본으로 하고 육경(六經)은 물론 제자백가에 통달하였다. 한원진(韓元震)의 심선악설(心善惡說)을 반대하고 임성주(任聖周)의 “성선(性善)은 곧 기질(氣質)이다.”고 한 주장에도 반대하였는데, 주리(主理)적 입장을 견지했다고 할 수 있다.

홍직필의 권유로 벼슬할 기회를 가졌으나 사양하고 성리설(性理說)·심설(心說)에 몰두하였다. 문인으로는 임철규(林哲奎)·김낙종(金洛鍾) 등이 있다.

전병순은 이기(理氣)의 선후 문제는 주리(主理)·주기(主氣)의 어떠한 시각에 입각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또한 심(心)에 갖추어진 이치를 성(性), 성이 모아진 기(器)를 심, 심성이 발한 곳을 정(情)이라 규정하였다.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은 정(情)이 발한 것으로 볼 때 주리의 입장은 사단이고, 주기의 입장은 칠정이라고 구별하여 설명하였다. 또 인심(人心)·도심(道心)은 그 발하는 곳에 근거하여 말한 것으로서 성명(性命)에 근원하면 도심이 되고 형기(形氣)에서 생기는 것은 인심이 된다고 하였다.

대학(大學)의 명덕(明德)이 심통성정(心統性情)을 말한 것이기는 하나 심과 성은 자체로서 구별되기 때문에 심·성을 나누어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의 사상적 배경에는 정자(程子)의 학설이 주를 이루었다. 저서에 『부계집(扶溪集)』이 있다.

『부계집』은 8권 5책으로 목활자본이다. 1913년 손자 범진(凡鎭)·익진(翼鎭)과 임철규(林哲奎)·김낙종(金洛鍾) 등이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권두에 전우(田愚)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김복경(金復經)의 발문이 있다.

젊은 나이에 벼슬을 단념하고 홍직필(洪直弼)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수학하였고, 뒤에 백운산(白雲山)에 들어가 40여 년 간 강학에 힘써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따라서 시나 문장에서도 성리학자로서 도(道)를 추구하는 의식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자연을 노래한 시에서도 단순한 자연의 묘사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원리의 탐구와 유교적 이념에 대한 지향이 깔려 있다.

<참고문헌>

『조선인명사서(朝鮮人名辭書)』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이재(李穡, 1680-1746)-2

이재는 김창협(金昌協)의 수제자로 노론 내 낙론학맥을 계승 발전시켰다. 영조 치세 연간 노론 벽파의 중심인물이다. 영조 연간 의리론(義理論)을 들어 영조의 탕평책을 부정한 노론 가운데에서 준론(峻論)의 대표적 인물이다.

김창협은 1669년(현종 10) 진사시에 합격하고, 1682년(숙종 8)증광문과에 전시장원으로 급제하여 전적에 출사하였다. 이어서 병조좌랑·사헌부지평·부교리 등을 거쳐 교리·이조좌랑·함경북도병마평사(咸鏡北道兵馬評事)·이조정랑·집의·동부승지·대사성·병조참지(兵曹參知)·예조참의·대사간 등을 역임하고, 송시열(宋時烈)의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筭疑)』를 교정하였다.

청풍부사로 있을 때 기사환국으로 아버지가 진도에서 사사되자, 사직하고 영평(永平: 지금의 경기도 포천시)에 은거하였다. 1694년 갑술옥사 이후 아버지가 신원됨에 따라 호조참의·예조참판·홍문관제학·이조참판·대제학·예조판서·세자우부빈객·지돈녕부사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직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문장은 단아하고 순수하여 구양수(歐陽修)의 정수를 얻었으며, 시는 두보(杜甫)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고상한 시풍을 이루었다. 문장에 능하고 글씨도 잘 써서 「문정공이단상비(文貞公李端相碑)」, 「감사이만웅비(監司李萬雄碑)」, 「김송겸표(金崇謙表)」, 「김명원신도비전액(金命元神道碑篆額)」 등의 작품을 남겼다.

이재는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 이간(李柬)의 학설을 계승해 한원진(韓元震) 등의 심성설(心性說)을 반박하는 낙론의 입장에 섰다. 그의 문하에 김원행, 송명흠, 임성주 등 출중한 제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이재는 숙종 경신년(1680) 9월 28일에 태어났다. 임신 중에 민 부인이 달이 수중에 드는 꿈을 꾸었는데 광채가 방에 가득하였다. 5세에 고아가 되었는데 작은아버지인 총숙공이 열성적으로 지도하였고 안으로는 민 부인의 인도가 또한 엄격하였다.

1702년(숙종 28) 알성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가주서·승문원부정자를 거쳐 예문관검열이 되어 『단종실록』 부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707년 문과 증시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이듬해 문학·정언·병조정랑을 거쳐, 홍문관부교리에 임명되었다. 1709년 헌납·이조좌랑·북평사를 거쳐 사가독서(賜暇讀書)했고, 1711년 이조정랑으로 승진, 이어 홍문관의 수찬·부교리·응교·필선·보덕 등을 지내고 집의로 옮겼다. 1715년 병조참의·예조참의를 거쳐 다음해 동부승지가 되었다. 이어 호조참의를 거쳐 부제학이 되었을 때 『가례원류(家禮源流)』의 편찬자를 둘러싸고 시비가 일자 노론의 입장에서 소론을 공격하였다. 이후 노론의 중심인물로 활약하였다.

신축년(1721) 겨울에 경종이 왕세제인 연잉군(훗날 영조)에게 대리청정을 명하자 소론 측에

서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대신들이 백료를 이끌고 명을 거두기를 정청(庭請)했는데 참여하지 않았다. 얼마 후에 신임옥사에서 중부 충숙공 이만성(李晩成)이 조옥(詔獄)에 유폐되어 죽자 예로써 염장(斂葬)하고 인제 골짜기로 들어가 더욱 경전에 힘써 날마다 과정을 두었다.

1725년(영조 1) 영조가 즉위한 뒤 부제학에 복직해 대제학·이조참판을 거쳐 이듬해 대제학에 재임되었다. 1727년 정미환국으로 소론 중심의 정국이 되자 문외출송(門外黜送) 되었다. 이후 용인의 한천(寒泉)에 거주하면서 많은 학자를 길러냈다.

예학(禮學)에 밝아 많은 저술을 편찬하였다. 저서로는 『도암집(陶菴集)』, 『도암과시(陶菴科詩)』, 『사례편람(四禮便覽)』, 『어류초절(語類抄節)』 등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사례편람』은 예학에 관한 깊은 조예를 토대로 편술되었다. 당시 거의 맹목적으로 시행하던 주자 『가례』의 허점을 보완하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요령 있게 엮었다. 『가례』는 원칙만의 편술이기 때문에 사용할 적에 어려움이 있었다.

상례(喪禮)는 『상례비요(喪禮備要)』를 주로 참고하고 현실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관행을 많이 수용하였다. 제례(祭禮) 역시 시속(時俗)의 예제(禮制)를 도외시하지 않았다. 관례(冠禮)와 혼례(婚禮)의 경우는 마땅한 준칙이 별로 없어서 『가례』의 고례(古禮)와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대폭 보충하여 서로의 차이점을 찾고 그 옳고 잘못됨을 그 나름으로 고석(考釋)하여 판별하였다.

『사례편람』은 이재가 죽은 뒤 그 자손들에 의해서 다시 수정되고 정사되어 비로소 완벽한 체제가 이루어졌지만 바로 간행되지 못했다. 이재의 증손인 광정(光正)이 수원유수(水原留守)로 있던 1844년(헌종 10)에 간행되었다. 이때 도록을 부록으로 붙였다. 그 뒤 황필수(黃泌秀)·지송욱(池松旭) 등이 『사례편람』에 보정을 더해서 『증보사례편람』이라 하여 1900년에 다시 간행하였다.

『사례편람』은 편술자인 이재의 명성도 있었겠지만 특색 있는 편술방법, 그리고 요령 있게 꾸며진 여러 학자들 주장의 이동(異同)과 그 고정(考正)이 있어서 사례를 행용하는 데 도움이 컸다. 『가례』의 원칙을 지키되 시속과의 묘미 있는 절충과 예의 보편성의 추구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기 마련인 예속의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이 간행되고 세상에 보급된 후에 편술된 많은 사례관계의 예서는 거의 이 책에 기준하여 편술되었고, 사회에서 시용되는 예속 역시 여기에 기준하여 행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되고 이용된 예서 가운데 『사례편람』의 이용도가 가장 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조실록』 22년 조에 이재의 졸기가 실려 있다. 사관의 기록을 통해 그 대강을 살필 수 있다.

“지중추부사 이재(李穉)가 졸(卒)하였다. 이재의 자는 희경(熙卿)이요, 본관은 우봉(牛峯)이니, 고 상신(相臣) 이숙(李翹)의 손자였다. 품성이 맑고 순수하며 어려서부터 문장으로 이름이 났고,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인망이 당대에 뛰어났었다. 신축년·임인년의 화가 일어났을 적에

그의 숙부인 판서 이만성(李晩成)이 무옥(誣獄)에 연루되어 죽자 어머니를 모시고 인제(麟蹄)의 설악산으로 은퇴하여 벼슬길에 생각을 끊고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였다. 을사년 경화(更化, 바꾸고 새롭게 함) 이후에는 누차 부름을 받았으나 단 한 번 서울에 들어와서 임금을 뵈고 만언(萬言)의 봉사(封事)를 올려 입을 다물고 어물어물하기만 하는 시론(時論)의 폐단을 진술하였다. 하지만 이때에 임금이 바야흐로 탕평책에 뜻을 기울이고 있는 참이어서 그의 말을 등한히 여겨 받아들이지 않자 드디어 용인(龍仁)으로 물러나 살았다. 이에 사방에서 배우러 찾아온 자가 매우 많았고 근세의 모든 선비들이 그를 종장(宗匠)으로 삼았다. 한원진(韓元震)은 선정권상하(權尙夏)의 문인인데 그가 심성(心性)을 논한 말이 이재의 말과 합치되지 않아서 이재가 시를 지어 변론하기도 하였다. 이때에 와서 죽으니 나이 67세였다. 학자들이 도암 선생(陶菴先生)이라고 일컬었다.”

<참고문헌>

국역조선왕조실록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원행(金元行, 1702-1772)-2

김원행은 자가 백춘(伯春)이고 본관은 안동(安東), 호는 미호(溟湖)다. 아버지는 승지 김제겸(金濟謙)이다. 당숙인 김송겸(金崇謙)에게 입양되어 종조부 김창협(金昌協)의 손자가 되었다. 김창협의 수제자인 이재(李穡)의 문인이고 조선 후기 집권 계층인 노론 가문의 후손으로 학통을 잇는 존재로서 조야(朝野)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학자였다. 당시 유수한 산림(山林)의 한 사람으로 명망이 높았다.

당시는 율곡학과 학맥을 계승한 송시열(宋時烈)의 주제자인 권상하(權尙夏) 문하에서 발생한 호락논쟁이 뜨거웠다. 권상하의 제자인 이간(李柬)은 김창협의 학설을 이어 이재와 함께 낙론의 중심이 되고, 권상하의 제자 한원진(韓元震)은 권상하의 학설을 이어 호론의 중심이 되었다. 김창협의 손자이자 이재의 문인인 김원행은 자연스럽게 낙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활동하였다.

김원행의 인물성론(人物性論)을 비롯하여 심설과 명덕설 등은 그의 문인 박윤원(朴胤源, 1734-1799)을 거쳐 19세기 초반 낙론을 주도한 오희상(吳熙常, 1763-1833), 홍직필(洪直弼, 1776-1852)에게 이어졌고, 20세기 초반 낙론의 중심인물로 활약한 전우(田愚, 1841-1922)에게 계승되었다. 또한 몇 사람의 실학자도 일부 배출되었는데,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이 대표적이다.

홍대용은 어려서 김원행이 주석하고 있던 석실서원(石室書院)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다. 석실서원은 안동 김씨 세거지에 있던 서원으로 김상헌(金尙憲)의 학덕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홍대용이 석실서원에서 수학한 기간은 12세부터 35세까지 23년간이다. 이 기간 동안 엄격한 학풍을 내면화하면서 성리학자로서의 기반을 닦았다. 아울러 이 무렵 박지원, 박제가 등 북학파를 형성했던 인물들과 교유했다. 부친이 나주목사를 하던 시기에는 나주의 실학자인 나경적과 함께 천문관측기구인 혼천의(渾天儀)를 제작하기도 했다.

여러 번 과거에 실패한 뒤 1774년(영조 50)에 음보(蔭補)로 세손익위사시직(世孫翊衛司侍直)이 되었고, 1775년 선공감감역(繕工監監役), 1776년 사헌부감찰, 1777년 태인현감, 1780년 영천군수를 지냈다. 홍대용의 학문적 업적은 1765년 초 북경(北京) 방문을 계기로 서양 과학의 영향을 깊이 받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담헌서(湛軒書)』는 약간의 시·서를 제외하면 거의가 북경에서 돌아온 뒤 10여 년 사이에 쓴 것이다.

김원행은 1719년(숙종 45) 진사가 되었으나, 1722년(경종 2) 신임옥사 때 조부 김창협이 노론 4대신으로 사사되고, 생부 김제겸과 친형인 김성행(金省行), 김탄행(金坦行) 등이 유배되어 죽음을 당하자 벼슬할 뜻을 버리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1725년(영조 1) 조부·생부·형 등이 신

원된 후에도 시골에 묻혀 살며 학문 연구에만 몰두하였다. 그 후 여러 중책으로 불렸으나 모두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1740년 내시교관(內侍敎官)을 제수 받고 1750년 위솔(衛率)·종부시주부(宗簿寺主簿), 1751년 익찬(翊贊)·지평(持平), 1754년 서연관(書筵官)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하였다. 1759년 왕세손(王世孫: 正祖)이 책봉되자 세손의 교육을 위하여 영조가 그를 불러들였으나 상소를 올려 사퇴하고 응하지 않았다. 1761년 공조참의(工曹參議)·성균관좌주(成均館祭酒)·세손유선(諭善)에 임명되었으나 역시 사양하였다. 문집에 『미호집(溟湖集)』이 있고 독서차록(讀書筭錄)과 미상경의(溟上經義) 등은 김원행의 경학 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미호집』은 20권 10책으로 된 활자본이다. 서문과 발문이 없어 간행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영조실록』 48년 임진(壬辰) 12월조에 ‘미호집약간권장우가(溟湖集若干卷藏于家)’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772년(영조 48) 저자 생존 시에 이미 『미호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書)에는 김시관(金時觀)과 성리설(性理說)에 관해 논란한 것, 유척기(兪拓基)와 예설에 대해 논한 것, 송명흠(宋明欽)·임성주(任聖周)·김종후(金鍾厚)·이완(李浣)·홍대용(洪大容) 등 당시의 많은 학자·문인들과 주고받은 서한들이 있다. 이 서한들에는 경의(經義)·심성(心性)·이기(理氣)·예설·사론(史論) 등에 관한 내용이 많아, 훈고학(訓詁學) 및 성리학에 관한 저자의 학문적인 영역이 광범위했음을 알 수 있다.

잡저 가운데 「잡기(雜記)」·「도곡수기(陶谷隨記)」 등은 독서를 하다가 학문에 관해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기록한 것이다. 「명덕설의문(明德說疑問)」·「중용귀신설(中庸鬼神說)」·「심성기질설시이민철(心性氣質說示李敏哲)」 등은 유가의 경전이나 성리설에 관해 논변한 내용들이다.

『독서차록(讀書筭錄)』은 김원행이 『중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정리한 책으로, 「중용장구서(中庸章句序)」 및 전(傳) 1장부터 33장까지 장별로 각 구절의 논리적 맥락을 분석하고 이를 풀이하였다. 김원행의 경학과 관련된 저술은 대부분 『중용』관련 저술에 집중되어 있다. 『독서차록』과 함께 『중용문답(中庸問答)』·『중용강설(中庸講說)』이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미호강의(溟湖講義)』·『미상경의(溟上經義)』에서도 『중용』의 비중이 역시 크다.

미상경의(溟上經義)는 김원행이 동료 학자나 문인과 도학(道學)의 중요 경전과 문헌에 대해 논의한 서신을 경전별로 분류한 저서이다. 이 책의 구성은 우선 『소학』에서 시작하여 사서(四書)·삼경(三經)을 거쳐 「태극도(太極圖)」·『근사록(近思錄)』·『심경(心經)』에서 끝난다. 노론 낙론계의 주요인물인 김원행의 경학사상이 경전별로 분류되어 있어서 18세기 낙론계의 사상적 쟁점과 문제의식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국역조선왕조실록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유언호(兪彦鎬, 1730-1796년)-2

유언호는 자는 사경(士京)이고 호는 칙지현(則止軒)으로 본관은 기계(杞溪)이다. 아버지는 우윤 유직기(兪直基)이다. 형이 은일로 이조참의에 천거된 유언집(兪彦鑣, 1714-1783)이다. 박지원(朴趾源, 1737-1805)과 교분이 깊었다.

박지원은 서울 명문가 출신이다. 할아버지는 경기도 관찰사를 지낸 박필균이고 박지원보다 12세 위의 팔촌 형 박명원(朴明源)은 영조의 사위였다. 영조는 가장 귀여워했던 딸을 박명원에게 시집보냈다. 딸이 2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위를 총애했다.

박지원은 1778년에 가족을 이끌고 황해도 금천군 연암골로 숨어들었다.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홍국영의 눈 밖에 났던 게 화근이었다. 박지원을 아꼈던 유언호는 서울을 떠나 있을 것을 권유하였고 박지원은 그의 말대로 연암골에 초가집을 짓고 살았다. 그곳이 바로 박지원의 서재 연암산방(燕岩山房)이 있던 곳이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아주 길지는 않았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 박지원은 죽을 때까지 연암이란 호를 썼다.

그로부터 2년 뒤, 삼종형 박명원을 따라 중국에 다녀왔고 이때의 견문을 정리하여 불후의 명작 『열하일기』를 쓰게 된다. 이 책이 등장하자 젊은이들은 그의 문체를 따라 썼고 박지원의 명성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유언호의 형 유언집은 자는 사호(士鎬)이고 호는 대재(大齋)로 권상하(權尙夏)·이재(李穡)의 문인이다. 부친 유직기가 『소학』의 「가언」과 「선행」편의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유언집이 『대동가언선행』을 편집했다. 『대동가언선행』은 아동 교육서이긴 하지만 누구나 본받을만한 훌륭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다. 내용은 대체로 『격몽요결(擊蒙要訣)』·『성학집요(聖學輯要)』·『퇴계언행록(退溪言行錄)』 등에서 해당 내용을 뽑아 정리하였다.

유언집은 학행이 있어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정조 1년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1778년(정조 2) 경연관이 되었으며, 1783년에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이 되어 원자를 보도(輔導)하였다. 그 뒤 이조참의에 이르러 치사(致仕)하였다.

1761년(영조 37)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다음 해 한림회권(翰林會圈)에 선발되었다. 이후 주로 사간원 및 홍문관의 직책을 역임하였다. 1771년에는 영조가 산림 세력을 당론의 온상이라 공격해 이를 배척하는 『엄제방유곤록(嚴堤防裕昆錄)』을 만들자 권진응(權震應)·김문순(金文淳) 등과 함께 상소해 경상도 남해현에 유배되었다.

『엄제방유곤록(嚴堤防裕昆錄)』에 대한 내용은 『영조실록』 40년 조에 그 대략이 나온다.

“임금이 태묘의 삭제(朔祭)에 쓸 향을 인정전 월대에서 지영하였다. 이어서 대신과 비국 당

상을 인견하고 전교를 쓰라고 명하였다. 고금 당론(黨論)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 두루 서술하고 또 어진 사람과 사특한 사람이 진퇴하는 의의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무릇 1백여 글자가 되었다. 이는 대체로 신경의 상소에 조화시켜 보려는 신하를 배척하여 산림의 선비가 또 하나의 당을 이루고 있다고 여겨 만약 근원을 통렬히 깨뜨리지 않으면 그 해가 홍수나 맹수보다 심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이를 책자로 만들어 《엄제방유곤록(嚴隄防裕昆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간행하여 사고에 넣어두라고 명하였다.”

유언집은 당시 왕세손이던 정조를 춘궁관(春宮官)으로서 열심히 보호했으므로 정조 등극 후에는 홍국영(洪國榮)·김종수(金鍾秀)와 함께 지극한 예우를 받았고, 『명의록(名義錄)』 편찬을 주관하였다. 자신의 이름이 『명의록』에 올라 있기도 하다. 본 편찬사업은 정조 1년 3월에 마무리되었는데, 김치인(金致仁) 등이 올린 차자(劄子)에 다음의 내용이 나온다.

“신 등은 명을 받고 삼가 두려워하여 주야로 편찬하면서 먼저 『존현각일기(尊賢閣日記)』를 권수(卷首)에 드러내어 그 체단(體段)을 높였고 다음에는 『정원일기(政院日記)』에 의하여 일·월(日月)을 차서(次序)하였으며 사실을 뽑고 문자(文字)를 조절하여 시종(始終)을 다 실었으며 금오(金吾)의 문안(文案)을 참고하여 국정(鞫情)을 다 실었고 간간이 조정의 계사(啓辭)와 소장(疏章)을 실어 국론(國論)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단락(段落)마다 번번이 논단(論斷)을 붙여 옛날 사신(史臣)의 주평(誅貶)한 뜻을 모방하였습니다. 편집(編輯)한 규모는 한결같이 『천의소감(關義昭鑑)』에 의거하였고 범례(凡例)와 대의(大義)는 모두 예재(睿裁)의 품지(稟旨)를 거쳤습니다. 국(局)을 설치한 지 4개월 만에 비로소 끝마쳤는데 책이 모두 3편(編)입니다. 신 등은 삼가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봉진(封進)합니다.”

그 뒤 이조참의·개성유수·규장각직제학·평안감사를 거쳐, 1787년(정조 11) 우의정에 올랐다. 이듬해 경종과 희빈장씨(禧嬪張氏)를 옹호하고 영조를 비판한 남인 조덕린(趙德隣)이 복관되자 이를 신임의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공격하였다.

이에 정조의 탕평을 부정한다는 죄목으로 제주도 대정현(大靜縣)에 유배되었다가 3년 뒤에 풀려났다. 이후 향리에 칩거했다가 1795년 잠시 좌의정으로 지낸 후 다음 해 사망하였다.

정조 즉위년에 왕과의 대담에서 김구주·홍봉한 양 척신의 당을 모두 제거하려는 정조의 뜻을 잘 보좌하였다. 또, 영조 때 탕평책 하에서 왕권 강화책의 일환으로 통청권(通淸權)을 혁파하고 개정한 한림회권법을 회천법(會薦法)으로 되돌리려는 논의에서도 소시법(召試法)의 중요성을 인정해 정조의 청의와 의리를 우선해 조제하는 탕평책을 옹호하였다.

어려서부터 문학으로 이름이 있었으며, 외유내강의 인물로서 평가된다. 저서로는 『칙지현집』이 있다. 1802년(순조 2)에 김종수와 함께 정조묘(正祖廟)에 배향되었다.

<참고문헌>

국역조선왕조실록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형수(徐迥修, 1725-1779)-2

서형수는 자는 사의(士毅), 호는 직재(直齋)이고 본관은 달성(達城)이다. 할아버지는 서종대(徐宗大)이고, 아버지는 현령 서명훈(徐命勳)이다. 이재(李穡)와 김원행(金元行)의 문인이다. 김원행의 딸을 배필로 맞이했고, 대사성 서유망(徐有望)이 아들이다.

스승 이재는 노론 내 낙론학맥을 계승 발전시켰다. 영조 치세 연간 노론 벽파의 중심으로 활약했다. 영조 연간 의리론(義理論)을 들어 영조의 탕평책을 부정한 노론 가운데에서 준론(峻論)의 대표적 인물이다. 청풍부사로 있을 때 기사환국으로 아버지가 진도에서 사사되자, 사직하고 영평(永平: 지금의 경기도 포천시)에 은거했다. 1694년 갑술옥사 이후 아버지가 신원됨에 따라 호조참의·예조참판·홍문관제학·이조참판·대제학·예조판서·세자우부빈객·지돈녕부사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직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용인의 한천(寒泉)에 거주하면서 많은 학자를 길러냈다.

스승 김원행은 이재의 수제자로 당숙인 김송겸(金崇謙)에게 입양되어 종조부 김창협(金昌協)의 손자가 되었다. 이재(李穡)의 문인이고 조선 후기 집권 계층인 노론 가문의 후손으로 학통을 잇는 존재로서 조야(朝野)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학자였다. 당시 유수한 산림(山林)의 한 사람으로 명망이 높았다.

서형수는 1751년(영조 27)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나 척신(戚臣) 홍계희(洪啓禧) 등 요인들이 교유를 청해온 것을 거절하여 관계의 진출이 늦어졌다.

1771년 교리로서 척신의 자제가 대거 대과(大科)에 급제하는 폐단의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승지로서 국가 대훈자(大勳者)의 특전이 너무 지나침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다. 그 해 벽파(僻派)를 탄핵하였다가 면직당하고 서인(庶人)으로 강등되어 쫓겨났다.

1773년 승지로 재기용된 뒤 대사간·강원도관찰사를 거쳐 1776년(정조 즉위년) 공조참의에 이르러 홍인한(洪麟漢)·이득신(李得臣) 일파의 전횡을 바로잡을 것을 계속 주장하였고, 그 뒤 대사간·좌부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서형수의 딸인 영수합(令壽閣) 서씨는 조선 후기의 여성시인으로서 학문이 뛰어나고 겸손한 인품에 승지 홍인모(洪仁謨)에게 출가하여 자식들까지 훌륭하게 키웠다.

조모가 “여자가 글을 잘하면 명이 짧다.”고 하여 글을 배우지 못하게 하여 형제들 곁에서 외우는 것을 듣고 깨우쳐 경적(經籍)을 널리 섭렵하였다. 출가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두었는데, 홍석주(洪奭周), 홍길주(洪吉周), 홍현주(洪顯周), 유한당(幽閑堂) 홍원주(洪原周) 모두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들이었다. 문집으로 『영수합고(令壽閣稿)』가 있다.

영수합고(令壽閣稿)는 1권으로 된 목활자본이다. 서씨의 남편 홍인모(洪仁謨)의 유고집인 『족수당집(足睡堂集)』 6권에 부록으로 편록 되었다. 영수합 서씨가 죽은 이듬해 아들들이 편찬하여 간행하였다. 1824년(순조 24)에 쓴 홍길주(洪吉周)의 발문과 홍현주(洪顯周)의 후기가 있다.

오언과 칠언의 절구 및 율시가 192수 실려 있으며, 1813년에 쓴 홍석주(洪奭周)의 묘표와 정경부인행장(貞敬夫人行狀)이 있다.

“선비성정은 똑바르다[先妣性情正].”고 아들들이 평하였던 바와 같이 수록작품은 대체로 규범적이며, 윤리·도덕적인 내용을 많이 썼고, 중국문장가들의 시문을 차운한 것이 많다.

맨 처음 실린 「기장아부연행중(寄長兒赴燕行中)」에는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주요작품으로 「차이백추하형문(次李白秋下荊門)」과 「차당인방은자불우(次唐人訪隱者不遇)」, 「차귀거래사(次歸去來辭)」 등이 있는데, 대부분 당시(唐詩)에 차운한 것이다.

<참고문헌>

국영조선왕조실록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문행(金文行, 1701-1754)-2

김문행은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사빈(士彬), 호는 화음(華陰)이다. 증조부는 김수증(金壽增, 1624-1701)이고, 조부는 김창국(金昌國)이며, 부친은 돈녕도정(敦寧都正)을 지낸 김치겸(金致謙)이다.

증조부 김수증은 1670년(현종 11) 지금의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영당리에 복거(卜居 : 살만한 곳을 가려져 정함)할 땅을 마련하고 농수정사(籠水精舍)를 지었다. 그 뒤 1675년(숙종 1) 동생 김수항(金壽恒)이 송시열(宋時烈)과 함께 유배되자 벼슬을 그만두고 농수정사로 돌아갔다. 이때 주자(朱子)의 행적을 모방하여 그곳을 곡운(谷雲)이라 이름 짓고 곡운구곡(谷雲九曲)을 경영하였다.

그 후 1689년 기사환국으로 송시열과 동생 김수항 등이 죽자 화음동(華蔭洞)에 들어가 정사를 짓기 시작했다. 1694년 갑술옥사 후 다시 관직에 임명되어 한성부 좌윤, 공조 참판 등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모두 사퇴한 뒤 세상을 피해 화악산(華嶽山) 골짜기로 들어가 은둔하였다.

조부 김창국은 숙종의 후궁인 영빈김씨(寧嬪金氏)의 아버지이다. 1681년(숙종 7)에 처음으로 관직에 나아가 빙고별감(氷庫別監)이 되었다. 장악원주부·첨정·의금부도사·공조좌랑(工曹左郎) 등을 지냈으며, 이후 동궁의 시위를 담당하던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익찬(翊贊)이 되었다. 또 익위(翊衛)·상의원첨정(尙衣院僉正) 등을 지냈으며, 이후 외직으로 나가 여러 고을의 현감과 군수를 지냈다. 1707년(숙종 33)에는 관직이 통훈대부(通訓大夫) 성천부사(成川副使)에 이르렀다

부친 김치겸은 김창흡의 아들인데, 김창국(金昌國)이 두 딸을 낳고 아들이 없으므로 종제(從弟) 김창흡(金昌翕)의 아들인 김치겸(金致謙)을 후사로 삼았다.

김문행은 1726년(영조 2) 증광사마시(增廣司馬試)에 진사 3등으로 합격하여 해주판관(海州判官)이 되었다. 1746년(영조 22)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을과(乙科) 2등으로 급제하여 부교리(副校理)를 거쳐 다음해인 1747년 수찬(修撰), 겸사서(兼司書), 겸문학(兼文學), 부교리, 응교(應教)를 역임했다. 1748년에는 사간(司諫), 보덕(輔德), 익선(翊善) 및 동지사서장관(冬至使書狀官)을 역임했다. 1753년에는 승지(承旨)에 올랐고, 좌승지(左承旨)와 대사간(大司諫)에 이르렀다.

김문행과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인연도 언급할 만하다. 황윤석은 자는 영수(永叟)이고 호는 이재(頤齋)로 김원행(金元行)의 문하에서 배워 널리 백가에 통하였다. 특히 수학과 천문에 당대 제일의 학자로 평가받았다. 『이재유고(頤齋遺稿)』, 『이재속고(頤齋續稿)』, 『이수신편(理藪新編)』, 『자지록(恣知錄)』이 있다. 이 중 『이재유고』에 「자모변(字母辨)」, 「화음방언자의해(華音方言字義解)」 등이 있어 국어학사의 연구대상이 되며, 운학에 대한 연구는 『이수신편』에

실려 있다. 처음 황윤석이 김문행을 찾아와 가르침을 청하자 과거에 전념할 것이 아닌 것을 알고 경학을 공부한다면 재종제인 김원행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소개하여 황윤석이 김원행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곳에서 만난 홍대용과 절친한 우정을 나눈다.

구한말에 대원군이 『이수신편(理藪新編)』을 구한 적이 있었다. 대원군이 이 책을 수소문한다는 소문을 접한 황윤석(黃胤錫)의 6대 후손은 집에 보관되어 있던 『이수신편(理藪新編)』을 가지고 서울 운현궁으로 찾아가 바쳤다. 대원군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자, "전라도 순창 회문산(回文山)에 있는 명당인 오선위기혈(五仙圍碁穴)에 묘를 한자리 쓰는 것이 소원입니다."라고 했다. 다섯 신선이 모여 바둑을 두고 있는 형상이라고 알려진 이 뒷자리는 당시 호남 최고의 음택지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런데 이 자리는 만일사(萬日寺)라고 하는 절 내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만일사(萬日寺)는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위하여 기도를 했다고 전해지는 절이다. 이성계가 무학을 만나러 만일사(萬日寺)에 왔다가 절 아래의 동네에서 고추장을 맛보았는데 이 고추장이 바로 오늘날 순창이 고추장의 명소로 알려지게 된 계기이다. 결국 대원군의 명에 의하여 만일사(萬日寺)는 산 아래쪽으로 이전해야만 했고, 원래 있던 절 자리에 황씨 집안이 묘를 쓰게 되었다.

<참고자료>

국역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김종후(金鍾厚, 1721-1780)-2

김종후는 자는 자정(子靜)이고 본관은 청풍(淸風)이다. 호는 본암(本庵) 또는 진재(眞齋)이다. 할아버지는 참판 김희로(金希魯, 1673-1753)이고, 아버지는 시직(侍直) 김치만(金致萬, 1697-1753)이며, 동생이 김종수(金鍾秀, 1728-1799)이다. 민우수(閔遇洙, 1694-1756)의 문인이다.

조부 김희로는 1702년(숙종 28)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704년 빙고별검(氷庫別檢)·경력(經歷) 등을 지냈다. 경종이 다병무자(多病無子)함을 들어 왕세제(王世弟: 뒤의 영조)의 대리청정을 주장하다 1721년(경종 1) 신임사화로 형 김재로(金在魯)와 함께 파직당하여 위원(渭原)에 유배당하였다. 그러나 1724년 영조가 즉위하고 노론이 세력을 얻게 되자 공조참판으로 기용되었으며, 이어서 호조참판·동지중추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부친 김치만은 1720년(경종 즉위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강릉참봉이 되었으며, 동몽교관(童蒙敎官)·시직(侍直) 등을 역임하였다. 1736년(영조 12)에 자신의 딸과 영조의 조카 낙천군(洛天君) 이온(李縑)과의 혼인을 반대하다가 파직되고 투옥되었다. 글씨를 잘 써서 서예가로 이름을 날렸다. 글씨로는 이도곡묘갈명(李陶谷墓碣銘)을 남겼다.

스승 정암(貞庵) 민우수는 김창협과 권상하의 문인이다. 20세 전 사마시(司馬試)에 장원으로 합격하고 21세 때 성균관에 들어가 학문을 닦았다. 후에 1743년 사헌부지평이 되었고 1750년 통정(通政)으로 승차(陞差)하면서 공조참의 겸 원손보양관(元孫輔養官)이 되었다. 1751년 사헌부대사헌을 거쳐 성균관좌주·세자찬선(世子贊善)·원손보양관 등을 역임하였다.

동생 김종수는 1768년(영조 44)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예조정랑, 부수찬(副修撰)을 지내고, 왕세손 필선(弼善)으로 성실히 보좌하였다. 이 때 외척의 정치 간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리론이 정조에게 깊은 감명을 주어, 뒷날 정치의 제1의리로 삼은 정조의 지극한 신임을 받았다.

영조가 죽자 행장찬집당상(行狀纂輯堂上)이 되었고, 그 뒤 승지·경기도관찰사·평안도관찰사를 거쳐, 규장각의 제도가 정비되면서 제학에 임명되었다. 1781년(정조 5) 대제학에 올랐고, 그 뒤 이조판서·병조판서를 거쳐 1789년 우의정에 올랐다. 임성주(任聖周)·윤시동(尹馨東)·김상묵(金尙默) 등과 친하게 교유했다. 정조는 윤시동·채제공과 더불어 3인을 자신의 의리를 조제하는 탕평의 기둥으로 지적하였다.

김종후는 어려서부터 사부(詞賦)에 능하여 문명이 있었고, 1741년(영조 17) 생원이 된 뒤부터는 성리학자로 알려졌다. 1776년 지평(持平)에 이어 장령(掌令)·경연관을 역임하였다. 이에 1778년 학행으로 천거되어 장령이 되고 경연관을 거쳐 자의(諮議)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장헌세자를 죽음으로 내몬 홍계희(洪啓禧)·김상로(金尙魯)·김구주(金龜柱)와 입장을

같이 하였다. 그 뒤 김구주(金龜柱, 1740-1786)가 제거되자 원빈(元嬪)의 오빠인 세도가 홍국영(洪國榮, 1748-1781)을 따랐다. 다시 원빈이 죽고 홍국영이 물러나자 소를 올려, 그에게 기만당하였다고 변명하였다.

김구주는 영조의 계비로 선조 초년에 수렴정정을 하면서 시파를 대거 숙청한 정순왕후(貞純王后)의 오빠다. 누이가 영조의 계비(繼妃)가 됨에 따라 음보에 의하여 벼슬에 올라 궁중에 출입하기 시작하였다. 1762년 김상로(金尙魯)·홍계희(洪啓禧) 등과 함께 사도세자를 무고하여 죽게 하였으며 부수찬(副修撰)이 되었다. 1763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부교리에 임명되었으며 강원도관찰사·좌승지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당시 왕세손이었던 정조의 외조 홍봉한(洪鳳漢)을 포함하여 왕세손의 지위를 위협하였다. 이때부터 시파(時派)·벽파(僻派)의 대립이 싹트기 시작하여 벽파의 영수(領袖)로서의 지위에 올랐다. 정조가 즉위하자 흑산도에 유배되었고, 1779년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 1784년 왕세자 책봉 때 특사령으로 나주에 옮겨졌으나 병사했다.

홍국영은 1771년(영조 48)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승문원부정자를 거쳐 설서가 되었다. 이 때 영조는 사도세자(思悼世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이고 그 소생인 손자(뒤의 정조)를 후계로 정하였다. 영조 말년 벽파의 횡포 속에서 세손을 보호한 공로로 세손의 두터운 총애와 신임을 얻게 되었다. 세손의 승명대리(承命代理)를 반대하던 벽파 정후겸(鄭厚謙)·홍인한·김구주(金龜柱) 등을 탄핵해 실각시켰다. 정조가 즉위하자 곧 동부승지로 특진하였다. 그 뒤 날랜 군사를 뽑아 숙위소(宿衛所)를 창설해 숙위대장을 검직하는 등 왕궁호위를 전담하고 도승지에 올랐다. 정조의 두터운 신임에 힘입어 조정 백관은 물론 8도 감사나 수령들도 그의 말에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모든 관리들이 그의 명령을 얻어야 행동할 수 있어 ‘세도(勢道)’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1778년(정조 2) 누이동생을 후궁으로 바쳐 원빈(元嬪)으로 삼아 자신의 입지를 굳혔다. 그러나 원빈이 20세도 못 된 나이로 1년 만에 병들어 죽는다. 왕비 효의왕후(孝懿王后)가 원빈을 살해한 것으로 믿고 1780년 음식에 독약을 섞어 왕비를 독살하려다가 발각되어 집권 4년 만에 축출 당했다.

정조 4년(1780)에 김중후의 졸기가 기록되어 있다.

“장령 김중후(金鍾厚)가 졸하였다. 김중후의 자는 백고(伯高)인데, 우의정 김구(金構)의 증손(曾孫)이며 김중수(金鍾秀)의 형이다. 영조 때 경학과 품행으로 천거되었고 지금 주상이 즉위하여 경연관으로 누차 불렀으나 나오지 않았다. 항상 명의(名義)를 가지고 스스로 자랑하였었는데, 홍국영(洪國榮)이 축출될 적에 상소하여 보류하기를 요청하면서 몹시 사리에 어긋난 말을 하였으므로 식자들이 그의 창피함을 비웃었다. 이때에 이르러 졸하니, 특별히 은전을 베풀 것을 명하였다. 그에게 본암집(本庵集)이 있는데,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국역조선왕조실록

『민족문화대백과사전』